

---

## 스웨덴 2014년 총선 전후의 정당정치: 좌우블록체제에서 3당 정당체제로의 전환\*

최연혁\*\*

---

스웨덴의 정당제도는 최근 들어 변화의 기로에 있다. 안정적 5개 정당체제가 1988년 이후 변화를 거쳐 현재 8개 정당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스웨덴 정당제도의 특징인 다당제도는 비례대표선거제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선거제도만으로 새로운 정당들이 정치권으로 새로 진입하고 퇴출되는 정치사회적 원인을 밝혀내지는 못한다. 이 글에서는 스웨덴 정당제도 변화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3가지 이론적 틀로 접근해 본다. 하나는 민족국가 형성과정에서 서로 충돌하는 권력중심부와 주변부와의 권력변경은 제도적, 사회적, 경제적 변화의 틀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사회균열이론으로 5개정당의 초기정당체제를 설명한다. 하지만 이 이론적 접근방식으로는 1980년대 등장한 환경당이나, 극우정당인 스웨덴 민주당의 2010년 의회진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다. 탈물질주의와 인종차별주의는 이런 변화를 분석해 보는 새로운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이 글은 3가지 이론을 바탕으로 2014년 선거결과를 분석해 본다. 2014년 선거는 좌우블록정치가 약화되고 서서히 3당 체제로 전이되고 있는 과정을

---

\* 이 논문은 2015년도 교육부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사회과학연구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NRF-2013S1A3A2055205)

\*\* 스웨덴 예테보리대학교

선거공약분석, 투표양태분석, 그리고 선거 후 정국상황의 논의를 통해 다룬다. 극우정당의 의회안착은 좌우블록 정치의 시대는 수명을 다하고 서서히 3당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좌우의 공조 없이는 의회과반의 안정적 정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룬 12월 좌우대 타협을 둘러싼 찬반논란 등은 앞으로 스웨덴 정당정치의 불확실성과 예측불가능성을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스웨덴 정당제도, 비례대표제, 사회균열이론, 인종차별주의, 적록 연정, 좌우블록정치, 스웨덴 민주당, 극우정당**

## 1. 들어가는 글

2014년 9월에 실시된 스웨덴 총선은 몇 가지 관점에서 스웨덴 정치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두 번 연속 집권에 실패한 사민당이 한 번 더 선거에서 패할 경우 민주적 보통선거제도가 도입된 1920년 이후 처음 경험하게 되는 세 번 연속 우익계열의 지배를 의미했다. 이 경우 최근 8년 동안 진행된 의료·보건 분야와 공공교육기관의 민영화, 세금인하, 복지서비스의 개인 선택권 확대와 시장의 역할을 강조한 사회복지 체제의 개혁이 탄력을 받아 1930년대 이후 구축된 사회민주주의모델은 대 변혁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sup>1)</sup>

2014년 총선의 또 다른 관심사는 극우정당과 여성당의 의회진출 여부에 따른 정당체제의 변화가능성이었다. 2010년 선거에서 의회진입에 성공한 극

1) 사회민주주의모델은 사회학자인 에스핑 안데르센 (Esping-Anderssen)이 주장한 세 개의 복지국가 레짐모델, 즉 영미모델, 대륙모델, 북유럽모델에서 나온 용어로 에스핑 안데르센은 북유럽 모델을 사회민주주의당이 사민당이 장기집권을 하면서 완성한 사회복지모델이었기 때문에 사회민주주의 모델 (Social Democratic Model)이라고도 불렀다. 사회민주주의모델은 높은 세금과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보편적 복지와 결과의 평등성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Esping-Anderssen (1999)을 참조

우정당 스웨덴 민주당이 또 다시 안정적으로 의회진출에 성공할 경우 의회가 8개 정당체제로 고착화되어 정국의 불확실성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만약 스웨덴 민주당이 의회에 재진입하더라도 2010년 수준인 5.7퍼센트 혹은 이보다 약화된 수준일 경우 좌익계열, 혹은 우익계열만으로도 단독연정이 가능하지만, 만약 10퍼센트를 상회하는 지지율로 의회에 진출을 할 경우 좌우 정당연합 어느 한 쪽도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해 좌우정당 블록간 정책적 타협을 보지 못할 경우 극우정당의 도움이 없이는 예산안 통과는 물론 정부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조차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정부의 약화가 예견되는 상황이었다.

스웨덴 여성당, 페미니스트 이니셔티브(Feminist Initiative)는 2014년 5월에 실시된 유럽의회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전국 득표율 6.5퍼센트로 창당 후 처음으로 유럽의회에 진출하는데 성공했다. 그 여세를 몰아 9월에 실시되는 총선에서도 의회의석 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득표율 4퍼센트 이상을 얻기 위해 고헌력 여성유권자가 밀집된 대도시위주로 선거운동을 전개했다. 선거직전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4퍼센트를 기록해 여성당의 의회진출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분위기였다(Svt 2014; Expressen 2014). 여성당이 의회진출에 성공하게 된다면 스웨덴의 정당체도는 2010년 총선 이후 구축된 8개 정당체제에서 9개 정당체제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한편, 기존 좌익계열 정당의 약화와 함께 정책공조의 난맥상, 그리고 정부구성을 위한 연립정당의 짜짓기 문제도 실타래처럼 얽이면서 스웨덴의 정치는 매우 불안정한 정치체제로 진입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역대 스웨덴의 정당체도는 1920년대에 이루어진 5개 정당 중심의 다당제가 60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 처음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한 1985년 총선 이후 선거를 치를 때마다 새로운 정당이 등장하는 불안한 다당제가 유지되었고, 2010년 선거에서는 극우정당까지 등장해 8개 정당체제로 변화되었다. 이 글에서는 2014년 총선 결과분석을 중심으로 스웨덴 정당체도의 형성, 고착화, 그리고 변화의 특징을 검토해 보고, 정당체도의 변화와 고착화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을 적용하여 2014년 총선 결과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좌파정부구성 이후의 정치적 지형과 정국상황을

분석해 보면서 스웨덴 정당정치 변화의 개연성과 방향성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은 각 당의 선거공약집, 언론자료, 총선출구 조사자료, 총선 이후의 정당들이 내놓은 선거결과 분석집, 여론조사 결과 등의 다양한 자료를 취합해 분석자료로 사용해 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정당제도 고착화와 변화동인을 3개의 이론적 접근방법으로 논의해 보고, 3장에서는 각 당의 선거전략을 검토해 본 후 선거결과의 의미를 논의해 보고, 4장에서는 유권자의 정당 지지와 선거양태를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해 본 후 스웨덴 정당체제의 변화가능성을 분석해 본다. 5장에서는 총선 이후의 정치상황을 분석해 보면서 스웨덴 좌우정당정치의 한계와 전망, 그리고 3당 체제로의 전이가능성에 논의해 보고 결론에서는 이론적 적절성, 스웨덴 정당치정치의 전망에 대한 논의로 글을 맺는다.

## 2. 스웨덴 정당제도 고착화와 변화의 동인

비례대표제는 스웨덴의 다당제의 형성과 연관성이 깊다. 서유럽의 민주화 과정에서 정착되기 시작한 비례대표제가 스웨덴에 도입된 시기는 1907년으로 이전까지는 양원제 개혁이 있었던 1866년 이후 줄곧 1인선거구 및 1인1표 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었다. 정당제도가 정착되기 이전에는 농민연합단체만이 의회에서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느슨한 형태의 정책공조를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의 정당구조를 가진 근대적 정당이라고는 보기 어렵다(Wallin 1961; Lewin 1972, 1984). 1882년 선거를 거치면서 저렴한 수입 농산물에 대한 보호주의 정책을 지지한 농민연합 그리고 보호무역에 반대한 자영업자 및 전신 길드조직의 직능기술자들이 지지하는 자유주의 정당이 등장하면서 양당체제의 틀이 갖춰지기 시작했다(Wallin 1961; Esaiasson 1980). 하지만 노동자와 도시저소득층을 대변하는 사민당이 창당된 1889년 이후 대기업과 귀족세력이 결속해 만든 보수정당이 등장하면서 1900년대 초 스웨덴은 농민당, 자유당, 사민당, 그리고 보수당 등 4개 정당체제로 진입했다. 1905년 노르웨이 독립과 국방예산 증액문제를 둘러싼 자유-사민의 한 축과

농민-보수의 한 축 간의 대립은 1914년 국왕의 개입으로 당시 자유당 출신 수상이었던 스타프(Karl Staaf) 해임으로 수면 아래로 잠수한 듯 했지만 이 갈등은 스웨덴의 초기 4개 정당체제의 고착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Lewin 1972, 1984). 스웨덴의 4개 정당체제는 1907년에 개혁된 비례대표 선거제도의 도입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었던 점에서 보면, 스웨덴의 정당체제가 4개 정당으로 유지된 원인을 선거제도만으로 설명하기 힘들다. 사회적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그 변화의 연속선상에서 정당구조도 변화한다는 사회균열(social cleavage) 이론은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준다.

사회균열구조는 민족국가 수립과정에서 중심부(center)와 주변부(periphery)의 핵심요소인 언어, 인종, 종교, 사회계급간의 권력관계가 재편되면서 발생하며 헌법구조의 변화 (예를 들어 신분제의회에서 양원제로의 변화), 노동시장의 변화 (즉 곡물경작과 판매를 중심으로 하는 농촌노동자와 지주 중심의 농업경제에서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본가에 대항하는 노동자의 등장과 노동조건과 환경개선을 목표로 한 노동운동의 진행 등)을 경험하면서 사회 구성원들의 분화구조가 진화한다는 립셋과 로칸(Lipset and Rokkan 1967; Rokkan 1970; Rhodes and Heywood 1997)의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스웨덴의 4개 정당체제는 신분제 의회제도의 발전과정에서 성장한 귀족, 성직자, 자유시민, 그리고 농민의 기본적 틀과 함께,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발전한 노동운동과 노동자세력의 정치적 규합을 통해 형성된 사민당의 등장을 설명하고 있다.

농민당(1882년 선거에서 세력이 재정비 되다가 전국정당조직으로 발전된 것은 1903년 창당 이후다, 농민당은 현 중앙당의 전신이 된다), 1889년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확장을 위해 창당된 사회민주당, 사회기득권 보호와 자유기업, 시장경제에 중점을 둔 보수당(1905년 창당, 1952-1967년 당명 우익당, 1967년 이후 당명 온건당 사용, 이하 보수당이라 칭함), 보호무역의 폐지로 시작된 자유당(1882년 보호무역주의 반대를 기치로 창당, 자유주의 세력은 다시 금주운동을 반대한 세력과 찬성한 세력 간의 대립으로 분리되어 있다가 1930들어 합당, 국민당으로도 불린다) 등 4개 정당체제로 한동안 유지되었다. 1920년 사민당의 급진좌파 세력을 중심으로 창당된 좌익당(1921-1967

년 당명 스웨덴 공산당, 1967-1990년 좌익공산당, 1990년 이후 좌익당으로 개명)이 합세하면서 5개 정당체제가 1988년까지 70년 동안 유지되어 왔다. 사민당과 좌익당의 복지와 분배, 확대조세 등의 진보적 정책과 나머지 3개 정당의 중도보수적 가치중심의 정책차이로 인해 1930년대 이후 국민의 집의 개념적 정의와 현실적용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인 복지논쟁, 이와 연관된 가족정책, 주택정책, 의료정책, 교육정책, 양극화에 대한 처방을 놓고 좌우정당 들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스웨덴 정치지형을 형성해 왔다. 즉 스웨덴 정당 제도의 특징은 다당제 체제 속에서 현격하게 대비되는 좌우블록정당화 체제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다(Möller 2011). 위에서 제시한 립셋과 로칸의 사회균열이론은 스웨덴 5개정당 체제의 형성과 유지, 그리고 블록화의 양당적 틀을 잘 설명하고 있다.

70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오던 5개정당 중심의 다당제에 변화가 일기 시작한 시기는 1980년대로 서유럽에서 전개된 녹색운동과 연관성이 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녹색당이 의회에 진출한 것을 시발점으로 스웨덴 녹색연합세력이 지속적으로 의회진출을 위해 노력해 왔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하지만 스웨덴 내에서도 195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던 전 세계적 핵발전소 사고의 여파로 국내 핵발전소 건설중단 및 폐쇄 등을 둘러싼 정당 간의 의회논쟁이 1976년 우익정부 기간 동안 점화되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기 시작했다(Holmberg and Asp 1980; Gilljam and Holmberg 1990; Bennulf 1994). 우익 3개 정당연합이 집권한 1976년 이후 (농민)중앙당 소속의 펠던총리가 추진한 국민투표가 1980년 핵발전소의 폐기 여부를 놓고 실시되기도 했다. 핵발전 폐기문제를 둘러싼 찬반운동으로 전개된 국민투표 이후 대도시의 20대를 중심으로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의 변화와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녹색당이 1988년 선거에서 처음으로 의회에 진출하는데 성공했다(Möller 2011). 녹색당의 의회진출로 70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오던 다당제는 이제 6개 정당체제로 재편되었다.

사회균열이론은 스웨덴 5개정당 체제의 특징과 변화를 정확히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환경당의 등장은 사회균열이론의 틀 속에서는 파악하기 힘들다는데 한계가 있다. 친환경당의 등장이 친

환경적 정치적 변화를 추구하는 사회구성원의 성장에 있다는 측면에서는 사회균열구조의 이론적 설명력은 어느 정도 유지되지만, 이러한 정치적 변화를 추구하는 동력은 헌법구조의 변화, 혹은 시장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사회에서 후기산업사회로 변화하면서 국민들의 중요한 사회적 가치기준이 물질주의적 소비형태에서 친환경 및 지구보존 등과 연계된 절약운동, 1960대에 전개된 베트남 전쟁철폐 운동과 평화주의 운동의 확산, 그리고 미국에서 전개된 흑인인권운동과 투표권투쟁, 그리고 핵발전 사고 등으로 급격히 확산된 안전문제와 환경문제의 제기 등 국민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 가치기준이 전쟁을 경험한 세대와 신세대간에 명확히 구분되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Holmberg 1984; Bennulf 1994). 즉 사회균열이론에서는 세대 간의 행태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도시의 신세대 유권자를 중심으로 전개된 환경운동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빵의 문제가 아닌 문화와 삶의 질에 있다는 인식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도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탈물질주의의 가치중심적 인식과 경제발전과 팽창, 그리고 무력전쟁보다는 평화, 빈곤국가의 원조 등을 통한 남북불균형 문제의 접근, 그리고 빈곤문제의 해결 등에 관심을 두면서 환경운동은 사회진보세력운동으로 자리매김 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탈물질주의 이론은 잉레하트(Inglehart)의 녹색혁명(green revolution)의 개념을 동원해 앞에서 제기한 사회균열이론이 민족국가의 팽창과 제도변화 등을 설명한 민족혁명(national revolution), 그리고 사민당 (영국, 노르웨이 등의 노동당)의 등장을 가능하게 한 산업혁명(industrial revolution)과 대비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Inglehart 1977; Inglehart, Basáñez, Díez-Medrano, Halmann and Luijckx 2004).

스웨덴의 정당체도는 종교문제가 사회이슈로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또 한 번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1963년 고등학교 과정에서 기독교의 교리와 윤리과목을 배제하려는 사민당의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조직한 전국 서명운동에 210만 명이 참가했고, 이 서명운동은 기독교가 다시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한 계기가 되었다. 기독교문제는 그 때까지 스웨덴의

중요한 사회적 균열구조로 자리를 잡지 못했지만, 역설적으로 1866년 이전까지 존재했던 4신분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었던 성직자 신분제가 양원제 개혁으로 폐지되면서 수면 밑으로 잠수했을 뿐 스웨덴 국민들의 의식세계 속에서는 중요한 행동원리와 가치기준의 내면에 휴면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1964년 창당된 기독교민주당은 2대 당수인 스벤손(Alf Svensson)이 당권을 잡은 1973년 이후부터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스벤손은 1985년 총선에서 고향인 옌쇠핑(Jönköping) 지역구에서 (농민)중앙당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당선되어 의회에 진출할 수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2.94퍼센트를 얻는데 그쳐 의회에 진출하는 데는 실패했다.<sup>2)</sup> 하지만 1991년 총선에서는 7.14퍼센트의 지지율로 우파정권이 들어섰을 때 집권정당의 위치까지도 오르는 대약진을 일궈냈다. 녹색당에 이어 의회에 진출하는데 성공한 기독교민주당을 포함한 스웨덴의 정당체도는 이제 7개 정당체제로 새롭게 자리를 잡았다.

기독교민주당이 스웨덴 정당체제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 있을까? 무엇보다도 1963년 고등학교 기독교 과목의 폐지에 따른 전국적 반대서명운동이 계기가 되었고, 2000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교회와 국가의 분리라는 국가적 제도의 변화가 국민의 내면에서 잠자고 있었던 기독교적 전통과 가치기준의 중요성을 기독교민주당이 다시 깨웠다고 해도 틀린 표현은 아니다. 옌쇠핑을 중심으로 전개된 개신교 운동과 의식개혁운동, 절제운동, 금주운동을 통해 꾸준히 기독교운동은 스웨덴의 사회균열구조에서 명확히 자리 잡고 있었지만, 루터교라는 동질적 믿음체계로 인해 사회적 갈등구조의 부재상태에서 유권자의 무의식 세계에서 휴면상태로 있었다고 할 수 있다(Hagevi 2005). 네덜란드, 벨기에의 경우 역사적으로 종교적 믿음의 차이와 신교간의 경쟁관계가 중요한 사회의 갈등구조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2) 정당간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정당명부의 당선 가능한 순위에 다른 정당의 후보자를 기입해 당선시킬 수 있게 용인하고 있는 이러한 선거제도를 Apparentement라 부른다. 기독교민주당의 당수였던 알프 스벤손은 옌쇠핑 선거구에서 중앙당의 1985년 선거 정당명부에 올라 당선되었다. 1988년 선거에서는 중앙당과의 전략적 제휴가 파기되었고, 2.94퍼센트의 득표율로 의회진출을 위한 조건인 4퍼센트의 전국득표율이나 12퍼센트의 지역구 최소득표율을 획득하지 못해 의회에 진출하는데 실패했다.

정치적으로 일찍 사회균열구조의 틀에 따라 정치화될 수 있었다는 점과 구분된다고 하겠다(Rokkan & Lipset 1967; Lijphart 2012). 따라서 기독교민주당의 등장도 당시 알프 스벤손(Alf Svensson)이라는 결출한 기독교민주당 당수의 전국적 인기에 힘입은 바도 무시할 수 없지만 사회균열이론으로 명확히 설명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의 정당구조에 또 한 번의 변화가 감지되었다. 1980년대 들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이민자가 스웨덴 사회에 정착하면서 이민자와의 갈등, 범죄, 이민자 실업 등의 사회적 문제가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다. 에티오피아 전쟁, 이란-이라크 전, 남미 칠레 및 아르헨티나 독재탄압, 코소보내전과 레바논 종교내전, 터키 등의 종교탄압 등을 피해 밀려오기 시작한 정치망명객의 폭발적 증가 등으로 촉발된 이민자문제가 스웨덴 유권자들의 사회적 균열구조에도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다(Langenbacher and Schellenberg 2011). 1991년 선거에서 이민자 이슈를 들고 나온 단일이슈 극우정당인 신민주당(New Democrats)이 1994년 선거에서는 의회에 진출하지 못해 반이민자 극우주의는 일과성 해프닝으로 끝이 나는 듯 했지만, 프랑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그리고 이웃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 유럽전체에서 확산되고 있었던 반이민자운동은 스웨덴 유권자까지 움직이기 시작했다. 2000년대 들어 해적당(Piratpartiet), 유니정당(Junipartiet) 등의 단일이슈 정당이 등장하다가 2006년 선거에서부터 반이민자 정서를 자극하는 정당인 스웨덴 민주당이 세력을 넓히기 시작하면서 2010년 총선에서는 5.8퍼센트의 지지를 얻어 의회에 진출하는데 성공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기존정당지지 세력을 중심으로 1991년의 극우정당인 신민주당처럼 1회성으로 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론조사에서 스웨덴 민주당의 인기는 기존중소정당을 능가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정당들은 긴장하기 시작했다. 2014년 선거는 스웨덴 정당제도 변화의 중요한 가늠자 역할을 하고 있다. 즉 극우정당이 다시 의회진출에 성공할 경우 스웨덴의 정당제도는 이제 8개 정당으로 고착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웃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는 이미 극우정당이 정책공조 혹은 연립을 통해 집권여당의 위치까지 확보하고 있었지만 스웨덴에서는 아직까지 반이

민자 정서가 국민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폭넓게 확산되지 못하고 있었다 (Langenbacher and Schellenberg 2011).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제3도시인 말피로센고드 폭력사태, 제2도시인 예테보리 함마쿨렌 폭력사태, 그리고 수도인 스톡홀름의 북쪽 외곽지역 휘스비(Husby) 폭력사태 등의 확산과 전국적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건설된 회교사원의 공격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스웨덴에서도 반이민자 정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앞에서 제시한 사회균열이론과 탈물질주의 녹색혁명이론으로 극우정당의 등장을 설명할 수 있을까? 전자가 민족국가 형성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가제도, 경제체제,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가 새로운 정당제도의 등장을 설명하는데 초점을 둔다면, 후자는 세계의 문제를 국내문제로 보는 동일시각과 가치기준이 교육의 확산을 통한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자 문제를 부각시켜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낸 극우정당의 등장을 이 두 개의 이론으로는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힌다. 극우정당 지지자들의 심리세계를 보면, “그들이 들어와 우리의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혹은 “저들은 내가 낸 세금만 축내는 기생충 같다”, “내가 어렵게 벌어서 낸 세금으로 보조금을 받아 공짜로 살면서 범죄나 저지르고...” 등의 나 혹은 우리 (I-We)와 반대되는 그들 (They)의 이분법적 심리분절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비이성적 혹은 문화심리적 인종우월주의 (Racism)에 기초한 설명의 잣대를 대기도 한다(Christopoulos 2012). 일부는 비이성적 인종우월주의보다는 합리적 결정이론(Rational decision-making theory), 혹은 제로섬의 게임이론(Zero-sum game theory)으로도 설명을 하기도 한다(Downs 1957; Merkl and Weinberg 2004). 그러나 어느 하나만으로는 정당제도의 변화를 설명하기는 힘들고 사회변화에 따른 정치와의 연계성을 통한 종합적 분석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3. 각 당의 선거전략과 선거결과 분석

정당의 선거전략은 선거 전 발표하는 선거공약을 통해 파악해 볼 수 있

다. 선거공약은 선거에 임하는 정당들의 전략과 정책내용을 담고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 장에서는 스웨덴 8개 정당과 새로 인기를 끌고 있는 여성당이 제작한 선거공약을 각 당의 홈페이지에 배포된 자료를 분석해 다루기로 한다.

### 3.1. 우익 4개 정당연합의 선거전략

우익4개 정당인 보수, 국민, 중앙, 기독교민주당의 선거공약집은 2006년과 2010년 이어 세 번째로 공동으로 제작해 선거운동에 임하고 있다. 2004년 8월 당시 우익4개당 당수들이 중앙당 당수였던 모드 올로프손의 여름별장 회합을 통해 처음 시작한 ‘스웨덴을 위한 연합(allians för Sverige)는 1994년 사민당에게 정권을 잃은 후 처음으로 공동선거 운동에 합의했다 (DN 2004). 2006년의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공동 선거운동전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0년에도 이전과 똑같은 형태로 선거운동을 진행했고, 탄탄한 공조체제로 2010년 선거에서도 불리한 전세를 뒤 집고 승리하는 저력을 보여준 적이 있다. 이번 2014년 선거에서도 4개당의 공동선거 운동의 전략인 선거공약집을 일찌감치 만들어 세 번째 승리를 위한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우익 4개 정당의 공동 선거전략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의 책임기조를 들 수 있다. 2010년 선거에서도 경제를 앞세워 성공한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인 경제성장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집권기간 8년 동안 20만개 이상의 신생 소규모 기업의 등록과 함께 30만개의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 다른 유럽 연합 국가들보다 빠른 경제성장의 견인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Alliansen 2014: 15). “고용은 최고의 복지”라는 우익 4개 정당들의 기본적인 인식을 잘 반영하고 있는 전략이기도 하다. 평상시에는 일자리를 통해 가계경제를 책임지고, 불의의 사고, 실업, 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개인임금으로 생활할 수 없을 때만 복지를 잠시 이용해야 한다는 ‘복지최소론’ 혹은 ‘일자리 복지론’이 핵심전략이다. 기업환경개선을 통한 청년실업 문제의 해

결이라는 메시지도 담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법인세를 낮추거나 임금 1년 치 국가대납, 청년고용 시 기업사회보장제 1년간 면제 등의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 안을 제시하고 있다.

고용증대를 위해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 집중되는 인구로 인해 발생하는 주택문제의 해결을 위해 매년 4만호의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2020년까지 유지해 총 25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장기마스터 플랜을 제시하고 있다(Alliansen 2014: 24). 경제발전의 모터라고 할 수 있는 스톡홀름지역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변외곽 지역까지 전철망을 확대해 7만5천 호를 2030년까지 건설해 수도권 지역에 공급한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양극화 사회의 치유는 고용증대와 개방으로 접근하고 있다. 개인에게 일자리가 없어 장기적으로 복지에 의존하게 되면 양극화는 더욱 빠르게 진행된다는 논리다. 즉 노동을 통한 사회적 화합을 강조하는 면이 엇보인다. 계층 간 갈등 뿐 아니라 스웨덴 국민과 이민자간의 사회화합을 위해 인도적 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사회적 적응을 도와 빨리 스웨덴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화합의 중요한 정책목표라고 지적하고 있다(Alliansen 2014: 51).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경제로 빠르게 변화시켜 새로운 경제체질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화석연료 에너지를 산업 및 가정, 그리고 자동차 동력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세계에서 선도할 수 있는 기술력 확보와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집권 8년 동안 온실가스의 배출을 14퍼센트 줄이는데 성공한 점을 부각시키며 앞으로 유럽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선도 기후환경국가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Alliansen 2014: 94).

강한 국방을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전개되고 있는 신냉전체제의 진행으로 스웨덴이 언제 다시 러시아로부터 침략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럽연합국가와의 협조 및 나토와의 군사적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국방비를 증가시켜 국방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군사 및 국방정책의 핵심이다. 국방력 강화의 수단으로 전투력의 강화, 행정인력

의 체계적 관리, 예비군제의 효율적 운영, 그리고 러시아와 맞닿고 있는 발틱해 방어를 위한 고틀란드 주둔 병력의 증강 등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Alliansen 2014: 122-123).

우익 4개정당의 공동 선거전략은 집권3기를 위한 공동의 야심찬 목표를 담아내고 있다. 2008년의 세계재정위기 상황에서 세계에서 가장 잘 대처한 경제정권이라는 점, 그리고 좌파 정당들로부터 양극화의 주범이라고 공격받고 있는 데에 대한 사회적 화합과 고용증대를 통한 경제성장의 부각, 그리고 4개 정당이 안정적 집권이 스웨덴의 재건에 가장 적합할 것이라는 점을 효과적으로 강조하고자 했다. 이러한 공약은 4개당수가 함께 전세를 내 운영한 버스유세 전국투어, 그리고 열차로 스웨덴 종단을 시도한 열차투어유세 등 새롭게 선보인 선거운동에서 반복적으로 부각되었다.

<표 1> 우익 4개 정당 공동 선거공약

	내용	평가
주요 공약	“우리가 스웨덴을 건설합니다”, 우익정당연합 2014-2018 선거공약집  1. 책임경제 2. 사회적 화합의 증진 3. 개방사회 4. 교육을 통한 국가재건 5. 서비스 질과 접근성 향상을 통한 의료보전 6. 노년생활이 평안한 삶 7. 안전한 사회 8. 환경과 기후문제 선도국가 9.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치 10. 함께 만드는 사회 11. 국제공동 문제에 강한 목소리 내기 12. 강한 국방	처음 2006년 선거를 위해 시작된 4개당 공동공약은 우익집권의 토대가 되었다. 2010년 선거에서도 공동선거공약을 통해 유권자에게 집권마스터플랜을 제시했다. 2014년 선거공약의 초점은 일자리를 창출을 통한 스웨덴 개조의 정치적 메시지 전달에 있으며 구체적으로 실천과제로 사회SOC 건설, 주택, 환경에너지, 학교교육의 질 향상, 취업의 문을 넓히는 기업환경개선 등의 국가재건에 맞추어져 있다. 총 126쪽의 방대한 정책공약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처: Aliansen (2014) 'Vi bygger Sverige'.

<http://www.alliansen.se/wp-content/uploads/2014/09/Vi-bygger-Sverige-Alliansens-val-manifest-2014-2018.pdf>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당의 고유 정책영역의 특화와 역할분담을 통해 선거운동을 전개했다는 점이 특이하다. 보수당의 경우 4개 우익 정권의 간판 정책인 경제, 재정, 외교, 법무, 국방, 국제원조, 국제무역, 문화, 사회보험, 노동 등의 정책분야 등 담당했고, 자유당의 경우 교육, 학교, 사회통합, 양성평등, 청소년 등의 정책영역에 집중했으며, 중앙당은 전통적 정책영역인 농업, 환경 뿐 아니라 산업, 사회인프라, ITC, 에너지 등의 분야까지도 영역을 넓혔으며, 기독교민주당은 사회복지, 아동, 노인, 장애인, 주택 등에 특화된 정책분야를 책임지고 선거운동을 펼쳐 나갔다. 이러한 역할분담론, 혹은 정책특화론은 연립내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중요한 원칙으로 이해할 수 있다.

### 3.2. 좌파계열 3개 정당의 선거전략

좌파계열 정당인 사민당, 좌익당, 환경당은 공동선거공약을 발표한 우익4개 정당들과는 달리 각각의 선거공약집을 발표했다. 2010년 총선에서 사민당이 환경당과 공동선거공약을 발표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어 2014년 총선에 임하면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sup>3)</sup>

사민당의 선거공약은 정권탈환을 위한 공격적 전략으로 8년 동안의 우파

---

3) 2010년 선거에 임하기 위해 좌익계열 정당들이 정책공조체제를 넘어 연립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을 당시에는 우익정당들보다 15퍼센트 포인트까지 앞서던 상황이었으나 협상과정에 많은 불협화음을 낳으며 지지층을 많이 잃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처음 논의를 시작할 당시인 2008년 10월경에는 사민당과 환경당만으로 구성된 2개정당 연립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다. 하지만 좌익당까지도 포함하는 3개정당 연립을 요구하는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가 당내외에서 들끓자 이를 수용한 결과 3개당의 정책노선을 골고루 반영해야 하는 공동선거공약 작업부터 불협화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우파의 입장에서 보면 좌파계열 정당간의 불협화음과 갈등으로 우파정당들이 전열을 정비해 반격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우파의 재집권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다(Aftonbladet 2008). 사민당의 당내 선거분석도 이 같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민당의 선거패착의 결정적 요인 중 하나로 3당 공조체제의 실패를 들고 있다. 좌익당과 환경당과의 연립정권 수립 계획 발표로 전통적 사민당 지지자들의 이탈이 진행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Socialdemokraterna 2010: 36).

정권의 실정을 부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속적인 세금 인하로 인한 복지제도의 축소로 사회적 약자의 양산 그리고 양극화 진행이 8년간 집권한 우익정권의 가장 큰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우파 집권기간 동안 실업률이 증가했고 PISA 국제교육 평가에서 중하위권으로 추락하는 등 학교교육의 질은 더욱 악화되었으며, 특히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공립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들어 계급사회의 재등장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익 집권 8년을 잘사는 사람만을 위한 중상층(upper-middle class) 정부의 실정이라고 결론짓고 있다(Socialdemokraterna 2014: 6).

양극화 해소를 위해 2020년까지 유럽연합에서 가장 낮은 실업률 달성, 유럽에서 가장 질 높은 교육을 위한 학교개혁, 그리고 효율적 보건의료제도 재건을 통해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Socialdemokraterna 2014: 6-7).

공약집에는 우파정권 8년 동안 시행된 정책의 폐해로 생겨난 다양한 사회 양극화 문제의 비판적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다. 실업자 국민 40만명의 삶의 질 저하, 연금생활자의 삶의 질 저하, 아동수당 및 기초생활비 수급자들의 저하된 삶의 질의 문제 등의 내용을 비판하면서 구체적인 공약실천 내용으로 국영직업소개소 개혁, 90일 청년일자리 실습, 산학간의 연계강화, 양성평등강화, 실업급여 인상을 통한 현실화, 좋은 선생님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한 학교교육의 질 향상, 수익형 사립학교의 감독강화, 고등학교까지의 의무교육제 도입, 아동들의 취미생활 및 방과 후 프로그램의 강화, 수익형 사회기업의 감독과 억제, 암병동의 확충과 접근성향상,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3만2천 청년도제제도의 실행 등의 실천 가능한 정책을 앞세우고 있다.

사민당과 선거 전부터 정책공조를 통해 교감을 해온 환경당의 선거공약은 전통적 환경, 기후 및 평등적 인간 및 기후관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양극화와 인종차별주의의 확대, 남성과 여성간의 경제적 차이의 확대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정치, 사람과 환경의 책임을 더 이상 지지 않는 정치의 무책임성을 강조하며 ‘따뜻한 정치’를 앞세워 정권교체를 이룬다는 복안이

다. 환경당의 정책은 더욱 인간 및 친환경적인 따뜻한 정치를 부각시키고 있다. 3개의 주요 정책지향점으로 탄소배출 축소, 저탄소 일자리 창출로 지속 가능한 경제, 교사들의 행정업무 축소를 통한 교육의 질 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다. 기후와 환경의 책무를 다하는 국가를 만들기 위한 10개 실천사항으로 기후정책의 국가전략을 마련해 세계지속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 2030년까지 전기 생산 및 에너지원으로 재사용가능한 연료의 100퍼센트 확보할 것, 스마트기후에 기초한 교통수단의 개발 (고속열차, 대도시 자전거전 용도로 확대), 화석연료 의존을 제로화, 친환경적 운송체계, 학교 및 노인시설에서 유기농식품의 소비확대, 화학음식재료사용의 억제, 동물보호강화, 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1회 용기 사용금지, 음식물 유효기간확대, 재활용의 확대를 위한 종합대책 등의 내용으로 환경당의 주지지층인 대도시 고학력 여성과 청년층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표 2> 좌익계열 3개 정당의 선거공약

	내용	평가
사민당 주요공약	<p>“희망찬 미래”, 전체국민이 누리는 더 좋은 국가를 위한 선거공약집</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체국민을 위한 고용정책</li> <li>2. 전체 국민을 위한 미래지식 사회</li> <li>3. 전체국민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복지</li> <li>4. 공정한 국제사회 건설</li> </ol>	<p>전체 46쪽으로 구성된 사민당의 선거공약집은 전통적 정책영역인 고용과 복지를 전략정책으로 담아내고 있다. 전체적 메시지의 틀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소수 중상층 국민 만을 정치가 아닌,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국민들에게도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성장의 분배를 강조하고 있다. 선거공약은 우익4개 정당 집권기간 동안 경제성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양극화만 키운 경제정책의 실패를 부각하기 위한 선거전략을 담고 있다</p>
환경당 주요공약	<p>선거공약집 ‘이제는 따뜻한 정치의 시간입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후와 환경 (10)</li> </ol>	<p>총 31쪽으로 구성되고 있는 환경당의 공약집은 11개의 정책방향과 78개의 구체적 실천사항을 담고 있다 (팔호안은 실천사항의 항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새 일자리 (10)</li> <li>3. 학교와 교육 (10)</li> <li>4. 페미니즘과 양성평등 (10)</li> <li>5. 국민건강, 삶의 질, 보건 (5)</li> <li>6. 도시와 농촌 (5)</li> <li>7. 이민과 인간평등 (5)</li> <li>8. 세계정의 (5)</li> <li>9. 경제와 노동시장 (5)</li> <li>10. 문화와 시민생활 (5)</li> <li>11. 민주주의와 법제도 (5)</li> </ol> <p>스웨덴의 현대화 (3)</p>	<p>수를 나타낸다). 환경당의 중심 정책이 환경과 기후에 녹아 있고 모든 사람이 골고루 지구환경의 누릴 권리, 그리고 지킬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발전과 독점에만 관심이 있는 보수정당들의 집권을 막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p>
<p>좌익당 주요공약</p>	<p>2014 총선을 위한 좌익당의 선거공약, ‘우리의 복지를 팔아서 안 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복지에 투표하세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익 없는 복지(2)</li> <li>2. 신뢰할 수 있는 복지의 질 (5)</li> <li>3. 안전한 직장과 인간적인 노동자의 삶 (9)</li> <li>4. 정의로운 페미니즘 (6)</li> <li>5. 생태학적인 지속가능사회 발전 (5)</li> <li>6. 완전고용을 위한 경제 (5)</li> <li>7. 집을 소유할 가질 권리 (2)</li> <li>8. 문화에 대한 투자 (3)</li> <li>9. 좋은 농촌정책 (2)</li> <li>10. 국제공조 (4)</li> </ol>	<p>총 10쪽으로 이루어진 공약집에는 10개의 정책방향과 43개의 실천사항을 담고 있다 (팔호안은 실천사항의 항목수를 나타낸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익형 사회기업의 이윤추구 금지와 복지의 투자를 중심전략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다. 우익정권 8년 동안 진행된 복지 시설의 민영화는 복지의 질 악화의 주범으로 보고 복지서비스에 진출하는 기업의 수익금지를 법제화해야 한다는데 주력하고 있다.</p>

출처: Socialdemokraterna (2014) 'Socialdemokraternas valmanifest'  
[http://www.socialdemokraterna.se/upload/val/Val2014/valloften/Socialdemokraternas\\_Valmanifest.pdf](http://www.socialdemokraterna.se/upload/val/Val2014/valloften/Socialdemokraternas_Valmanifest.pdf)  
 Miljöpartiet (2014), 'Dags för en varmare politik'  
[http://www.mp.se/sites/default/files/valmanifest\\_uppdaterad.pdf](http://www.mp.se/sites/default/files/valmanifest_uppdaterad.pdf)  
 Vänsterpartiet 2014 'Valplattform för riksdagsvalet 2014'  
<http://www.vansterpartiet.se/assets/V%C3%A4nsterpartietValplattform2014.pdf>

좌익당의 정책공약집은 사회양극화의 주범인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선거전략을 담고 있다. ‘복지를 팔아서 안 됩니다’라는 선거

구호는 우익정권이 추진한 복지시설 민영화에 대한 반격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정개인이 아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 정의, 신뢰, 질, 권리라는 가치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선거공약집은 10개항의 정책영역과 43개의 실천사항에 잘 녹아있다. 시민당과 환경당의 정책공약집과는 달리 시장경제의 폐해와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정책메시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좌익당의 핵심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큰 효과를 보았겠으나, 복지시설의 민영화반대와 사회기업들의 이익창출 금지를 절대 타협 불가능한 영역으로 못 박아 놓음으로써 선거 후 전개될지 모르는 좌파정부구성을 위한 물밑 협상에서 미리 문을 닫아 놓고 기다리는 것과 같은 전략적 경직성의 문제점도 지적된다.

### 3.3. 스웨덴 민주당과 여성당의 선거전략

스웨덴 민주당은 2010년 선거에서 5.7퍼센트의 지지율로 의회에 진출한 극우정당으로 스웨덴적 가치와 전통, 문화를 지키기 위해 이민자들의 유입을 반대하고, 이미 스웨덴에 있는 이민자들 중 실업상태에서 사회복지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을 기생충이라는 단어를 공공연하게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외국인 혐오주의를 기본이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미 오케손(Jimmi Åkesson) 당수의 인기도는 오히려 자체 정당보다 높으며 2010년 선거 이후 스웨덴 민주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4년 선거는 극우정당이 4퍼센트 이상의 지지를 받고 다시 의회에 진출할 수 있을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얼마나 더 세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더 클 정도로 여론조사에서 줄곧 10퍼센트 대의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고 있었다. 스웨덴 민주당의 세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스웨덴 정당제도는 더 이상 과반수를 획득하는 정치블록의 등장을 불가능하게 하는 다당제의 구조적 상황에서 좌우간의 팽팽한 균형관계에 있을 때 스웨덴 민주당이 지지하는 쪽으로 승리의 추가 기울게 된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비록 5.7퍼센트의 작은 정당이지만 의회정치에 핵심 열쇠를 가진 균형자 역할을 선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력이 스웨덴 민주당에 상당부분 집중되어 있는 상

황이다. 정책메니페스토에는 인종차별, 신나치즘의 추종, 반이슬람, 반유대주의를 내걸고 있지는 않지만 이 정당에 참여하고 있는 소속 정치인, 당원 등은 극우정치집회에 참가해 대외적으로 정치적 색채를 들어내고 있다.

공약에 나타난 선거전략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우리”와 “그들”의 2분법적 구분으로 스웨덴적인 전통과 가치, 역사, 문화를 지키기 위한 민족주의의 자극을 통해 유권자들의 이성적 판단보다 감성에 호소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외국인들의 배척과 차별이 진정한 애국이고, 외국인 유입으로 스웨덴의 정체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기존정당들이 스웨덴적인 전통과 가치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새로운 정당을 통해 이루어야 한다는 논리로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민자들의 복지지원, 낮은 정치참여 등을 공식적으로 비판하지 못하는 기존정당들 대신 공론화시켰다는 점에서 많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의회선거 4개월 전에 있었던 유럽의회선거에서 9.7퍼센트의 지지를 얻어 스웨덴에 배정된 20석 중 2석을 획득해 유럽의회에 진출하는 등 고무적인 분위기 속에서 선거운동을 펼쳤다.

스웨덴의 양성평등수준이 세계에서 가장 높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평등사회는 아니라는 비민주성을 강조하는 정당이 여성당(FI, Feminist Initiative)이다. 이 정당은 2006년부터 선거에 참여하기 시작했으나, 0.6퍼센트의 저조한 지지를 받아 4퍼센트 최저 득표율 규정에 따라 의회에는 진출하지 못했지만 2010년 선거이후 지방의회에는 진출해 활동하고 있다. 전 좌익당 당수를 역임한 구드룬 슈만(Gudrun Schyman)이 당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좌파적 평등성과 페미니스트의 정치사상을 바탕으로 여성해방과 여성의 진정한 자유를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Lindberg 2009, 2010). 2014년에는 같은 해 5월에 있었던 유럽의회선거에서 6.5퍼센트를 받아 한 석을 확보할 수 있었던 여파를 몰아 의회진출을 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여성당의 정책공약을 보면 신생정당답게 다른 여타 정당들에 비해 선거공약이 간결하지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양성평등적 임금체계, HBTQ (homosexual, bisexual, transsexual and queer persons) 등의 성과 관련된 차별의 제거, 가사노동의 경제적 보상, 남성의 폭력 배제 등의 구체적 실천

강령 등을 담고 있는 선거공약은 도시여성, 고학력 전문직 남성 등의 특수유권자 층이 지지를 보여주고 있어 전국적 지지기반이 취약한 한계가 있다. 하지만 선거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줄곧 4퍼센트 이상의 지지율을 받아 유럽의회 선거에 이어 스웨덴 의회에도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고 있었다.

<표 3> 스웨덴 민주당과 여성당의 선거공약

	내용	평가
스웨덴 민주당 주요공약	“우리는 복지를 선택합니다”, 스웨덴 민주적 선거공약  1. 안전한 스웨덴 (7) 2. 평안한 노년을 위한 복지 (7) 3. 사회조화와 복지를 위한 이민정책 (9) 4.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자 (8) 5. 실업급여의 확대 (4) 6. 기업환경의 개선 (5) 7. 질, 정의, 접근성이 있는 보건의료 (4) 8. 스웨덴적이며 안전한 학교교육 (7) 9.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스웨덴 (4) 10. 강한 가정, 독립가정, 그리고 안전한 아동을 위한 정치 (4) 11. 현실적이며 지속가능한 환경에너지 정책 (6) 12.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은 양성평등 (10) 13. 스웨덴적인 문화정책 (6) 14. 살아 있는 농촌, 동물친화적 사회 (6) 15. 초국가주의를 배제한 유럽주의 (5) 16. 강한 독립적 스웨덴 목소리를 내는 외교 정책 (4) 17. 소외된 스웨덴 사람을 위한 정치 (5) 18. 성장과 발전을 위한 조화로운 스웨덴 정책 (4)	극우파 정당으로 분류되는 스웨덴 민주당의 수사법은 두 단어로 요약된다. 즉 “우리” 와 “스웨덴적 전통”을 지키기 위한 정당이라는 것이다. 스웨덴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정당이라는 구호를 앞세워 우리의 복지, 전통을 사수할 수 정당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스웨덴 국기, 전통의상을 형상화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점은 극우정당의 민족주의적 자국과 국가주의의 호소라는 측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민자들의 유입을 스웨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민자들이 많아질수록 스웨덴 사람들의 복지는 더욱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전체 18 정책분야로 세분해 105가지의 구체적 실천강령을 제시하고 있다. 스웨덴의 소외 국민을 위한 복지, 강한 국가, 스웨덴의 가치를 강조하는 문화교육 등 국수주의와 민족주의의 감정에 호소하는 성향이 강하다

<p>여성당 주요공약</p>	<p>'모두를 위한 페미니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014 정치지형 (5)</li> <li>2. 우선순위 정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 노동과 경제 (4)</li> <li>2.2. 복지 (3)</li> <li>2.3. 안보와 인권 (3)</li> <li>2.4. 지속가능성과 사회 (3)</li> </ol> </li> <li>3. 인종차별주의 Out, 페미니즘 In</li> </ol>	<p>여성당은 양성평등을 지향하면서도 인간의 평등성을 기반으로 하는 좌파성향의 정치노선을 선택하고 있다. 2014년의 정치지형을 아직도 남성과 기성권력이 지배하는 불평등사회로 규정하고 평등성을 차별과 폭력이 없는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비교적 간결하고 명확한 메니페스토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인종차별주의는 배척하고 양성평등 실현을 사회구조의 근본적 개조를 통해 이를 때 인권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p>
---------------------	--	--

출처: Sverigedemokraterna (2014) 'Vi väljer välfärd'  
<http://sverigedemokraterna.se/wp-content/uploads/2014/08/Valmanifest.pdf>  
 Feminiskt initiativ (2014) 'Feminism för alla'  
<http://feministisktinitiativ.se/wp-content/uploads/2014/06/Fi-valplattform-riksdag-2014.pdf>

### 3.4. 2014 총선 결과 분석

2014년 선거결과는 스웨덴 정치사에서 새로운 획을 긋는 사건으로 간주될 정도로 이전과 다른 정치지형을 만들어냈다. 사민당의 단독소수 내각시대가 저물고 이제는 좌파연립내각의 형태로만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는 정당제도의 변화에서 가장 큰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사민당의 약화는 19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8년 이전까지 전통적 5개 정당체제가 유지되어 오다가 환경당의 의회진출로 6개 정당체제로 진입했다. 당시 환경당의 진출은 거의 비슷한 유권자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었던 우익 중앙당의 표를 잠식할 것이라는 예상이었지만,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이 사민당이었다. 그 이유는 환경당의 정강정책이 인간의 평등성에 기초한 환경문제 이슈의

접근이었기 때문에 환경당의 당세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민당의 대도시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1991년 선거에서 기독교민주당과 당시 극우정당이었던 신민주당(Nydemokraterna, New Democracy)이 등장하고 환경당이 탈락해 7개 정당으로 증가했다. 1994년 선거에서는 환경당이 의회에 재복귀하고 신민주당이 탈락해 7개 정당체제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1994년 체제는 2010년까지 16년 동안 유지되어 오다가 극우정당인 스웨덴 민주당이 진출하게 되면서 8개 정당체제로 진입했다. 2014년 선거는 예전의 극우정당이었던 신민주당이 연속의회진출에 실패한 경험이 있어 스웨덴 민주당이 과연 다시 의회에 진출해 8개 정당체제를 공고히 할 것인지, 그리고 유럽의회선거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여성당이 의회에 진출해 9개 정당체제로 전이될 것인지가 주된 관심사였다. 이 같은 정당체제의 변화는 기존정당들의 지지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당의 진출은 그만큼 희생정당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뚜껑을 열어보니 선거의 결과는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결과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선거 4개월 전인 2014년 5월 Demoskop 여론조사에서는 여성당이 4.3퍼센트를 차지해 의회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했다 (Svt 2014a). 선거직전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4퍼센트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Expressen 2014). 선거 당일 실시된 출구조사에서도 여성당은 4.0퍼센트를 획득해 여성당의 선거본부는 축제 분위기로 잠시 열광하기도 했다 (DN 2014). 하지만 개표결과가 속속 발표되기 시작하면서 축제분위기는 점점 사라지고 우울한 기운이 감돌았다. 결국 여성당은 공식집계 3.1퍼센트를 획득해 0.9퍼센트 포인트의 차이로 의회진출에 실패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정치사에서 새로운 획을 긋게 되는 사건으로 규정할 이유는 존재한다. 선거결과를 놓고 분석해 본다.

아래 표 4가 잘 보여주고 있듯이 사민당은 2014년 선거에서 4년 전 선거와 비교해 0.35 퍼센트 포인트만 증가한 31.01퍼센트의 지지율에 그치고 있다. 한 때 여론조사에서 39퍼센트까지 치솟던 지지도가 선거 4개월 전부터 31퍼센트에 고정되어 있던 여론상황에 큰 반전은 없었다. 결국 사민당은 이

번 선거에서 승리도 패배도 아닌 선거를 치른 셈이다. 다른 좌익계열정당의 경우도 지지도에서 큰 변화는 없었다. 환경당의 경우 2014년 선거에서 6.89퍼센트를 획득해 4년 전과 비교해 볼 때 0.45퍼센트 포인트가 도리어 하락하는 양상이었으며 좌익계열의 마지막 한 축인 좌익당은 5.72퍼센트를 얻어 2010년 선거에서 얻은 5.60퍼센트보다 0.12퍼센트 포인트만 증가하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3회 연속으로 집권해 스웨덴 정당사에서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에 들떠 있었던 우익정당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4.4퍼센트 포인트의 차이로 좌익계열 정당들에게 최대블록의 자리를 내주고 8년 동안 유지해 왔던 권좌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선거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우익계열 내 최대정당인 보수당의 저조한 성적표라 할 수 있다. 2014년에서 얻은 23.33퍼센트는 2010년에 얻은 30.06퍼센트보다 6.74퍼센트 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8년 동안 수상으로 우익연립정권을 이끌어 온 라인펠트 보수당 당수와 쌍두마차를 이루던 안데스 보리 (Anders Borg) 재무장관의 경제중심 공약의 실패를 의미하기도 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집권당이 불리하지만 경제위기를 효과적으로 방어한 여당이 승리한다는 역가설도 설명력을 잃고 있다 (Kriesi 2012; Hernández and Kriesi 2015). 우파의 패배원인이 보수당에게만 국한되지는 않았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익계열 3개 정당들의 지지도는 이전 선거 때보다 소폭씩 감소했기 때문이다. 중앙당의 경우 0.44퍼센트 포인트, 자유당의 경우 1.63퍼센트 포인트, 그리고 기독교민주당도 1.03퍼센트 포인트씩의 감소를 보여 선거패배의 원인은 4개 정당 모두에게 골고루 분산되어 있다고 하겠다.

2014년 총선은 단 한 정당만을 위한 선거가 되고 말았다. 스웨덴 민주당은 12.86퍼센트를 얻어 명실공이 사민당과 보수당에 이어 제3당으로 올라서는 기쁨을 맛보았다. 이 같은 선거결과를 크게 두 가지의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첫째로 극우정당의 정당체제 고착화를 들 수 있다. 1991년 선거에서 반짝 등장했다가 1994년 선거에서 실패해 역사에서 사라진 신민민주당의 경우 미미한 차관의 돌풍으로 끝났지만, 이번 2014년 선거에서는 스웨덴 민주당이 2010년에 이어 연속으로 의회에 진출하면서 이제 극우정당은 스웨덴

정당체제에 완전히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역대 선거역사를 보면 두 번 연속으로 의회진출에 성공한 정당들은 정당체제 속에서 생존했던 선례를 볼 때 이제 스웨덴 민주당은 스웨덴의 8개 정당체제의 한 축을 차지하는 정당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 같은 상황의 변화는 곧 좌우블록의 약화는 물론 의회정치의 원칙인 과반수의 통치(majority rule)의 약화를 의미한다. 어느 정당블록도 과반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좌우연정이 아닐 경우 극우정당의 도움 없이는 이제 정부의 단독법안 처리는 불가능해졌다. 아래 표가 보여주고 있듯이 좌파정당 블록은 43.7퍼센트, 그리고 우익블록은 39.3퍼센트를 얻는데 그쳐 순수 좌우블록만으로는 과반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2014년 선거개표가 완료된 순간부터 정부구성문제를 놓고 대과란이 예고되고 있었다(이 부분은 총선 이후의 정치상황분석을 다룬 7장을 참조). 2014년 총선은 1920년대 이후 사민당 단독내각이 아닌 2개의 좌익계열 정당으로 이루어진 연립정권을 구성하게 되었다는 점, 극우정당이 좌우블록의 균형자 역할로 정국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스웨덴 정치사의 중대선거(critical election)로 기록되고 있다.

<표 4> 2014년 총선 정당별 득표율 및 투표율(2010년과 비교)

정당	득표수 2014	득표율 2014	득표수 2010	득표율 2010	득표수 증감 (2014-2010)	득표율 증감 (2014-2010)
보수당 (M)	1453517	23,33	1791766	30,06	-338249	-6,74
중앙당 (C)	380937	6,11	390804	6,56	-9867	-0,44
자유당 (FP)	337773	5,42	420524	7,06	-82751	-1,63
기독교민주당 (KD)	284806	4,57	333696	5,60	-48890	-1,03
사민당 (S)	1932711	31,01	1827497	30,66	+105214	+0,35
환경당 (MP)	429275	6,89	437435	7,34	-8160	-0,45
좌익당 (V)	356331	5,72	334053	5,60	+22278	+0,11
스웨덴 민주당 (SD)	801178	12,86	339610	5,70	+461568	+7,16

여성당 (FI)	194719	3,12	24139	0,40	+170580	+2,72
기타	60326	0,97	60884	1,02	-558	-0,05
전체	6290016	85,81	6028682	84,63	+261334	+1,18
좌익블록 합계	2 639 338	43,7				
우익블록 합계	2 377 696	39,3				

출처: Valmyndighet, <http://www.val.se/val/val2014/slutresultat/R/rike/>

참조: 1. 우익블록: 보수당(M), 중앙당(C), 자유당(FP), 기독교민주당(KD)를 포함.

2. 좌익블록: 사민당(S), 환경당(MP), 좌익당(V)를 포함.

시계를 조금 돌려 우익집권이 탄생한 2006년 때부터 비교해 보면 2014년 선거결과의 의미는 더욱 명확해진다. 4개 우익정당의 연립정권을 탄생하게 한 2006년과 2010년 두 선거를 비교해 보면 보수당은 처음 정권을 잡았을 당시 보다 거의 4퍼센트 포인트에 해당하는 지지율로 약진한 결과, 여타 3개 우익계열 정당들이 소폭씩 후퇴하는 상황 속에서도 재집권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만큼 우익연립 정권의 만형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수당의 성공과 실패는 앞으로도 우익집권의 열쇠가 된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띤다고 하겠다. 사민당은 보수당과 완전 반대의 양상을 보여 준다. 2006년 선거에서 사민당이 얻은 34,99 퍼센트만 얻었어도 2010년 선거에서 우익정권 집권 2기는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2010년의 선거는 사민당에게는 아픈 경험을 안겨준 셈이다.<sup>4)</sup> 2014년의 선거는 보수당

4) 이 글에서는 2010년 선거가 주연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민당 패배 원인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앞서서도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좌파연립의 공조체제 구축과정에서 터져 나온 불협화음은 우파의 재결집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의 씨앗을 제공해 주었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당시 선거를 이끌었던 사민당 모나 살린 당수의 낮은 인기도가 패착의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1995년 사민당 권력 승계 당시 1위의 위치에 있었던 모나 살린(Mona Sahlin)이 Toblerone 스캔들로 잘 알려져 있는 불명예로 정치를 떠난 후 다시 정계에 복귀해 당수의 위치에까지 올라 부정적 이미지를 털어내고 재기에 성공하는 듯 했지만 사민당의 집권을 이끌 만큼의 인기도는 확보하지 못했다. 항상 정당지지도 보다 낮은 개인인기도는 결국 사민당 집권패배의 원인으로 분석된다(Expressen 2014).

에게는 큰 패배를 안겨준 선거라는 점에서는 이의가 없지만 사민당 입장에서 보면 승리한 선거가 아닌 보수당의 패배로 인해 정권을 얻은 것이지 사민당이 약진한 결과 정권을 찾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14년 선거의 결과의 의미를 좌익계열의 승리로 결론짓기는 무리수가 따른다.

<표 5> 2006년 총선 이후 정당별 득표율 변화(2006-2014년 비교)

정당	2006 득표율	2010 득표율	2014 득표율	득표율 증감 (2014-2006)	득표율 증감 (2014-2010)
보수당 (M)	26,23	30,06	23,33	-2,90	-6,74
중앙당 (C)	7,88	6,56	6,11	-1,77	-0,44
자유당 (FP)	7,54	7,06	5,42	-2,12	-1,63
기독교민주당 (KD)	6,59	5,60	4,57	-2,02	-1,03
사민당 (S)	34,99	30,66	31,01	-3,98	+0,35
환경당 (MP)	5,85	7,34	6,89	+1,04	-0,45
좌익당 (V)	5,24	5,60	5,72	+0,48	+0,11
스웨덴 민주당 (SD)	2,93	5,70	12,86	+9,93	+7,16
기타1	2,75	0,40	3,12	+0,37	+2,72
좌익블록 합계	46,08	43,60	43,62		
우익블록 합계	48,24	49,28	39,43		

출처: Valmyndighet, <http://www.val.se/val/val2010/slutresultat/R/rike/>

참조: 1. 여성당 (FI)를 포함한 수치임.

2. 우익블록: 보수당(M), 중앙당(C), 자유당(FP), 기독교민주당(KD)를 포함.

3. 좌익블록: 사민당(S), 환경당(MP), 좌익당(V)를 포함.

득표율이 아닌 의석비율로 비교해 봐도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 이유는 스웨덴의 선거제도가 비례대표제로 이루어져 있고, 29개 선거구에 배정된 310개 의석과 각 정당의 비례성을 확보하게 해 주는 전국추가 의석

39석이 있어 득표율과 의석비율에서 큰 차이를 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같은 결과는 스웨덴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도가 1.4를 제수로 하고 홀수로 증가를 하는 방식인 수정라게방식(modified sainte-laguë method)에 따라 전국득표율 4퍼센트 혹은 특정 지역구 득표율 12퍼센트를 획득하지 못한 정당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표를 지역구에서 고정석에 배분되고 남은 표의 크기에 따라 다시 분배해 사표발생을 최대한 줄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sup>5)</sup>

<표 6> 정당별 배분의석수, 의석비율 및 득표율과의 비교 (2010-2014년 비교)

정당	2014의석 수1	2010의석 수	의석수 증감 (2014-2010)	2014의석 배분비율	2014 득표율	의석비율 -득표율2
보수당 (M)	84	107	-23	24,07	23,33	+0,74
중앙당 (C)	22	23	-1	6,03	6,11	-0,08
자유당 (FP)	19	24	-5	5,44	5,42	+0,02
기독교민주당 (KD)	16	19	-3	4,58	4,57	+0,01
사민당 (S)	113	112	+1	32,38	31,01	+1,37
환경당 (MP)	21	19	+2	6,02	6,89	-0,87
좌익당 (V)	25	25	0	7,16	5,72	+1,44
스웨덴 민주당 (SD)	49	20	+29	14,04	12,86	+1,18
기타	349	349				

- 참조: 1. 선거구에서 배분되는 310석과 추가로 배분되는 39석을 합한 의석수 총 349석. 39석의 추가의석수는 전국기준 4퍼센트 혹은 단일 선거구 기준 12퍼센트 이상을 획득한 정당에게만 배분되며 각 당이 선거구에서 의석배분에 사용된 득표수의 나머지 표의 총합계를 의석비율에 따라 다시 배분하기 때문에 대표성을 높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2. 플러스(+)는 득표율보다 의석배분비율이 높게 나타날 때, 마이너스(-)는 반대의 경우를 의미한다. 각 당별로 차이가 나는 현상은 선거제도인 수정라게방

5) 스웨덴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는 Choe (2003)을 참조.

식 (Modified Saint Laguë)에 따라 배분되는 310석의 선거구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고 남은 득표수의 총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당의 지역구 사정에 따라 손해를 볼 수도 이익을 볼 수도 있다. 2014년의 경우 6개 정당이 득표율에 비해 의석비율이 높고, 2개 정당만이 반대의 경우에 해당한다.

이제 각 정당의 득표율을 지역별로 분석해 보자. 시민당은 전통적으로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급의 권익증진을 위한 정당으로 자리매김해 왔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의 지지도는 항상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이는 2014년 선거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표7이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듯이 광부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노르보텐에서는 단독으로 48.73퍼센트를 얻어 거의 과반수에 이를 정도의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대도시에서 꾸준히 지지율이 하락해 이제는 말피를 제외하고는 제1, 제2 도시에서 보수당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고, 전통적으로 산업노동자들이 많이 밀집해 시민당의 표밭이라고 했던 말피에서조차 전국 득표율에도 못 미치는 29.29퍼센트를 얻고 있다는 점을 보아서도 시민당이 얼마나 취약한가를 가늠할 수 있게 해 준다.

반면 보수당의 경우 대도시에서 시민당보다 우세하거나 비슷한 지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익보수 정당들 중 가장 안정적인 당세를 유지하고 있다. 스톡홀름에서는 전국득표율보다 훨씬 높은 30.20퍼센트를 확보해 그나마 보수당의 선거패배의 폭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완충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반대로 시민당이 강세인 노르보텐에서는 군소정당으로 전락할 정도로 낮은 지지율을 얻는데 그쳐 지역적 편차가 큰 편이다. 이를 달리 해석해 보면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대도시에서 강세인 보수당에게는 호재인 반면,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산업노동자의 수가 줄고 있는 북쪽 지역에서의 인기를 바탕으로 한 시민당은 지지층 확보를 위한 외연확대에 획기적 변화를 추구하지 못하면 앞으로 25퍼센트의 정당력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벅찬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당에게는 어두운 구름이 드리어 있고, 반대로 보수당에게는 다소 전망이 밝은 상황이라 진단할 수 있다.

<표 7> 특정 지역별 정당득표율 및 투표율(2014년)

지역명	M	C	FP	KD	S	V	MP	SD	FI	투표율
Stockholm1	<b>30,20</b>	4,98	7,45	4,79	22,82	6,20	9,47	8,17	<b>4,93</b>	85,66
Göteborg	<b>23,86</b>	3,80	7,22	4,60	<b>23,68</b>	9,35	9,83	9,64	<b>6,48</b>	82,82
Malmö	<b>23,18</b>	2,71	5,58	2,58	<b>29,29</b>	7,59	8,58	13,50	<b>5,58</b>	79,73
Blekinge	19,39	5,67	3,90	3,41	37,15	4,64	4,86	<b>18,55</b>	1,66	86,84
Norrbottn	12,90	4,52	3,23	3,04	<b>48,73</b>	8,56	4,88	10,97	2,37	85,59
All Sweden	23,33	6,11	5,42	4,57	31,01	5,72	6,89	12,86	3,12	85,81

참조: 1. 스톡홀름은 스톡홀름시(Stockholms kommun)와 스톡홀름 광역시 (Stockholms län)을 합친 수치임.

2014년 선거에서 유일하게 승리한 정당인 스웨덴 민주당은 대도시보다는 남부지역의 중소도시지역에서 폭발적 인기를 구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로 구수한 남부지역 방언인 스콘스카(skånska)를 구사하는 오케손 당수가 스코네 지역 출신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말피지역, 특히 고향인 쇠베스보리(Sölvesborg)가 있는 블레킹에 지방은 스웨덴 민주당의 중요한 승부처가 되고 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고른 득표율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스웨덴 민주당이 얼마나 약진하게 될지 모르는 스웨덴 정치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는 셈이다. 스웨덴 민주당의 약진은 곧 우파의 표를 잠식한다는 의미가 되어 우익정권의 탄생이 갈수록 요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스웨덴 민주당을 정치파트너로 인정해 의회 내에서의 공조체제를 넘어 우익정당 블록의 한 축으로 정권에도 참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sup>6)</sup>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여성당은 환경당과 지지층이 겹치는 대도시 정당임을 알 수 있다. 환경당의 성공이 대도시, 젊은 여성 및 고학력 유권자이듯이 여성당의 경우에 있어서도 대도시에서의 지지율만 보면 의회에 진출할 수

6) 이미 유권자 수준에서는 스웨덴 민주당과 함께 우익블록 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쪽보다도 높아 2018년의 선거결과에 따라 우익보수연합의 한 축으로 정부에도 참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하겠다. 이에 대한 논의는 SvD (2015)를 참조.

있을 정도의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다. 당조직을 잘 정비해 전국에서 고르게 득표에 성공한 환경당의 전례를 모방해 여성당도 전국정당화를 시도한다면 2018년 선거에서는 거뜬히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최저선인 4퍼센트를 얻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쉬만 (Gudrun Schyman)이라는 걸출한 정당당수의 인기도에 힘입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점칠 수 있는 상황이다.

#### 4. 2014년 유권자 투표양태에 따른 통한 총선분석

스웨덴 유권자들의 투표양태를 통해 선거결과를 분석해 보면 각 정당들의 약진과 후퇴의 원인과 지지층의 사회인구적인 배경을 알 수 있게 된다. 유권자 행태분석은 시계열분석으로 시기별로 비교해 들여다 보면 정당의 부침과 변화에 대한 양상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한 방법으로 간주된다. 스웨덴 유권자들의 최근 20년 기간 동안 가장 큰 변화의 특징으로 지적되는 것이 전통적 계급투표자의 감소와 선거에 임박한 투표정당의 선택을 들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투표 당일 실시된 출구투표의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기로 한다.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민당의 핵심지지층은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실업자, 병가자, 그리고 실업교육참가자 등과 그리고 LO 소속 노동자라고 할 수 있다. 좌익당은 사민당과 약간 겹치는 양상을 보인다. 가장 안정적인 지지층은 병가자 및 실업교육 참가자 등에서 찾아볼 수 있고 LO 노동자들의 지지도 두텁다는 점에서 사민당과 경쟁관계에 있어 진보적 유권자들의 표를 나누어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좌파계열의 또 다른 정당인 환경당의 경우 젊은 학생층과 교육자 노조인 SACO 가입 회원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

보수당의 경우는 화이트칼라중사자, 자영업 중사자 등 개인사업자 및 회사고위직에 해당하는 직업군에서 가장 안정적인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다. 전신이 농민당이었던 중앙당의 경우는 아직도 농촌지역의 절대적 지지를 받

고 있으며, 지지층의 저변이 가장 취약한 정당으로 자유당을 들 수 있다. SACO 가입 노조원의 지지를 제외하고 매우 낮은 지지를 받고 있어 앞으로 핵심지지층 발굴에 나서지 않을 경우 1940년대와 50년대에 확보하고 있었던 30퍼센트 정당으로 복귀해 우익계열 정당의 만형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 뿐 아니라 정당의 생존마저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 진단할 수 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정당이 기독교민주당이라 할 수 있지만 다양한 직업군, 노조소속에 따른 지지율이 4퍼센트를 넘는 경우가 자유당보다는 많다는 점에서 심각성은 덜하겠지만, 앞으로 기독교민주당의 지지율도 새로운 지도부의 활동에 따라 정당체제에서 생존하던지 다시 의회에서 퇴출되든지 하는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인다.

<표 8> 노동시장 소속, 산업별, 그리고 소속노조별 정당지지도

정당	2014년 투표정당										
	v	s	mp	c	fp	kd	m	sd	fi	기타	합
봉급생활자	8	25	10	7	7	5	24	7	6	1	100
실업자	8	37	8	5	3	3	17	13	5	1	100
병가 및 실업교육	15	43	7	3	0	3	7	14	6	3	100
학생	10	21	15	7	7	4	16	5	14	2	100
노동자	9	40	8	4	4	3	13	12	6	1	100
화이트칼라	8	23	9	7	8	6	26	6	6	1	100
농림산업	6	14	4	45	0	6	14	8	4	0	100
자영업자	5	15	8	10	7	6	36	8	5	1	100
LO	10	51	6	3	2	2	10	11	3	1	100
TCO	9	29	9	7	7	5	22	6	6	1	100
SACO	8	20	13	8	11	7	20	4	9	0	100

출처: VALU 2014,

[http://www.svt.se/svts/article2323667.svt/binary/SVT\\_ValuResultat\\_riksdagsval\\_2014\\_PK\\_0914.pdf](http://www.svt.se/svts/article2323667.svt/binary/SVT_ValuResultat_riksdagsval_2014_PK_0914.pdf), 16쪽.

참조: LO (Landsorganisationen): 스웨덴 노동자 총연맹 (1898년 설립, 14개의 산별노조

가 가입되어 있으며 150만명의 노조원을 확보하고 있음)

TCO (Tjänstemanna Centralorganisation): 스웨덴 사무직 중앙노조 (1944년 설립, 14개의 산별노조가 가입되어 있으며 총 120만의 노조원을 확보하고 있음)

SACO (Sveriges akademikers centralorganisation): 스웨덴 교육자 중앙노조 (1947년 설립되어 현재 22개의 산별노조가 가입되어 있으며 2013년 기준 64만명이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음)

스웨덴 민주당의 약진은 역시 고른 득표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불만세력인 핵심 지지층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 그룹 중에서도 스웨덴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이 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은 스웨덴 국민들의 복지제도의 소외감은 이민자들이 들어와 혜택을 값아먹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당지도부의 선거전략이 매우 시혜적절 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실업자와 병가자 및 실업교육 참가자 중 스웨덴 민주당 지지율이 각각 13퍼센트, 14퍼센트로 사민당과 좌익당의 표를 잠식하고 있어 좌파정당의 약화를 촉진시키는 요소라 할 수 있다. 또한 LO 노동자 중에서도 폭넓게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봉급수준이 낮은 노동자계급의 표도 잠식하고 있다는 뜻으로 좌파정당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여성당의 경우 핵심지지층이 젊은 학생들이며 고른 지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여성당의 의회진출 가능성은 매우 고무적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최근 20년 동안 가장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유권자들의 선거양태로 투표 정당 결정시기를 들 수 있다. 유권자들의 투표정당 결정양태는 정당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을 경우 투표정당 결정이 선거일이 임박하는 것과 관계없이 정당일체감에 따라 투표하는 성향을 보이지만, 기존 유권자들 사이에서 정당들의 신뢰가 떨어지거나, 가치기준의 변화에 따른 기존정당의 배척, 새로운 정당이 그러한 변화의 목마름을 대신 채워줄 수 있을 때는 마지막 순간까지 투표할 정당에 대해 고민하고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표 9가 이러한 가설적 논의의 좋은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다.

1991년과 2014년 사이 진행된 출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1991년에는 유권자 중 28퍼센트가 선거당일 혹은 1주일 이내에 투표정당을 결정했다고 답했으

나, 점차 증가하여 2014년 선거에서는 34퍼센트의 유권자가 마지막 순간까지 투표정당을 고민한다고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안정적인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정당은 놀랍게도 스웨덴 민주당이다. 그만큼 기존정당에 만족하지 못한 유권자일수록 일찌감치 스웨덴 민주당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으로 사민당과 보수당이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에 따른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타 우익정당들은 선거일이 임박할 때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투표정당을 택하는 경우로 정당지지율 약화의 중요한 설명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즉 50퍼센트 가까이 되는 유권자가 핵심지지층이 아니라 투표 마지막 순간까지 전략적 고민을 하다가 선택하는 경우라 언제든지 더 지지층이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예측에 가장 잘 해당하는 정당이 중앙당이라 할 수 있다. 새로 의회에 진출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여성당 지지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여성당 지지자들의 경우 기존 좌익당, 혹은 환경당 지지자들 중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다가 지지정당을 바꾸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좌우정당 할 것 없이 투표 당일까지 긴장의 고삐를 풀지 못하고 끝까지 선거운동에 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기서 언급해야 할 점으로 전통적으로 선거를 1주일 남겨 놓고 전국에 생중계되는 스웨덴 국영 TV 정당당수 토론의 중요성이다. 최종 선거를 남겨 놓고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제공하는 정책토론이라는 점에서 많은 유권자들이 그 때까지 유보를 해 놓고 있다가 토론을 보고 지지정당을 결정하는 경우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비에렐드의 지적은 매우 유의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Bjereld 2013).

&lt;표 9&gt; 정당투표 결정일: 선거 당일 혹은 선거 전 1주일(%)

	1991	1994	1998	2002	2006	2010	2014
전체	28	28	32	32	35	30	34
v	26	34	31	25	32	27	29
s	19	18	26	24	26	28	27
mp	58	48	45	48	52	39	42
c	33	36	37	43	51	44	52
fp	39	49	44	48	44	40	46
kd	35	43	48	39	43	34	43
m	21	24	24	25	28	21	31
sd	-	-	-	-	34	23	24
fi	-	-	-	-	62	40	46

출처: VALU 2014,

[http://www.svt.se/svts/article2323667.svt/binary/SVT\\_ValuResultat\\_riksdagsval\\_2014\\_PK\\_0914.pdf](http://www.svt.se/svts/article2323667.svt/binary/SVT_ValuResultat_riksdagsval_2014_PK_0914.pdf), 8쪽.

지금까지 유권자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위치, 노조소속 등에 따른 정당지지도와 투표결정 시기에 따른 정당지지도를 살펴보았다. 이제 정책선호도와 정당지지에 대한 상관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앞 장에서 소개한 각 당의 선거전략은 선거에서 이길 경우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에 대한 정책공약에 기초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렇다면 과연 선거에서는 각 정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어떻게 유권자들이 평가하고 있으며, 각 정책의 평가에 따라 어떻게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아래 표 10은 위와 같은 의문점을 풀어 줄 것으로 보인다.

아래 표 10에서 밑줄로 표시한 수치는 각 정책영역별로 가장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정당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굵은 선으로 표시한 수치는 각 정당별로 가장 높게 점수를 받은 정책분야를 보여준다.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세금은 보수당, 환경은 환경당, 고용은 사민당, 국가경제와 가계경제는 보수당, 정치난민과 이민 문제와 복지 및 사회문제(보건의료, 양성평등, 학교교육, 사회복지, 연금 등)는 사민당이 가장 잘 수행

할 것으로 유권자들이 평가하고 있으며, 수익형 사회기업활동 금지 문제는 좌익당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책분야별로 유권자들이 정당을 평가해 보았다면 정당을 기준으로 어떤 정책에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좌익당의 경우 수익형 사회기업활동 금지 항목이 가장 높은 21점을 기록하고 있다. 2014년 선거공약 중 가장 비중있게 다룬 점을 비추어 볼 때 유권자들의 평가를 제대로 받고 있는 셈이다. 사민당의 경우 12개의 전체 정책분야 중에서 58퍼센트에 해당하는 7개의 정책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보수당은 3개 정책분야만 최고점을 받아 25퍼센트에 그치고 있다. 유권자들이 보수당보다 사민당의 정책수행 능력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 중 사민당이 31퍼센트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3개 정책영역, 즉 고용,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은 우익정권의 정책실패에 따른 불신임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지만 사민당이 193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국민의 집을 기치로 건설한 사회복지국가와 완전고용 정책을 포함하는 분야로 전통적으로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나머지 4개 분야(연금, 양성평등, 학교교육, 난민문제)도 사민당이 선거운동기간동안 우익정권의 실정을 강하게 비판한 정책영역으로 집권할 경우 복지제도의 개선, 의료보건 개혁, 학교교육 강화, 정치망명객 정착문제와 사회적응교육 등에도 유권자들의 높은 기대치가 반영되고 있다고 하겠다.

보수당은 경제연관 분야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08년의 세계 재정위기 때 빠른 경제회복과 성장을 이끈 점이 높게 평가받아 국가경제(39%)를 가장 잘 책임질 정당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가계경제(34%)와 세금문제(33%)에 있어서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정당으로 보수당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은 8년 집권의 경제성적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내용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보수당에게는 고무적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정책 분야에 있어서도 1퍼센트 포인트 차이로 사민당에 1위 자리를 내 주었지만 30퍼센트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고용과 경제분야에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그리스사태에 따라 요동칠 수 있는 유럽과 세계경제의 상황에 따라 4년 후 다시 경제와 고용, 그

리고 세금문제가 선거의 주요 이슈가 된다면 경제에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보수당에게는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당과 중앙당은 환경정책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두 당은 공통적으로 녹색을 당의 로고색상으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환경을 중시한다. 따라서 두 당의 간판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은 매우 합리적 결과라 할 수 있다. 환경당은 기후변화, 친환경 에너지정책, 친환경 교통정책 등을 추진하는 정당으로 42퍼센트라는 높은 점수는 단일 이슈정당으로서 유권자의 가장 중요한 유인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책선호에 따른 정당투표를 보여주고 있는 표10에서 가장 높은 점수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단일이슈정당들의 선거전략이 어때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다.

중앙당의 경우 환경당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환경문제가 대표 정책분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아직도 중앙당을 환경이슈 특화정당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1980년 핵발전소를 둘러싼 국민투표도 중앙당이 정권을 잡았던 1976년 선거 때부터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시킨 결과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직까지 환경정책 분야를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프로필 정책분야로 특화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우익집권 기간 동안 환경부와 농림부처 장관직을 중앙당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환경당이 획득한 42퍼센트보다 22퍼센트 포인트나 낮은 20퍼센트에 그쳐 중앙당의 대표 정책분야로서는 무게감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타 정책분야도 5퍼센트 아래의 매우 낮은 점수를 받고 있어 앞으로 중앙당의 핵심정책분야 개발이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당세확장은 물론 군소정당으로서 생존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우익계열 군소정당인 자유당과 기독교민주당도 예외는 아니다. 2006년부터 2014년 우익집권 기간 동안 교육부 장관직과 학교교육부 장관직으로 유지해왔으며 자유당 당수로 활동한 비르크룬드(Jan Björklund)의 경우 지속적으로 학교이슈를 자유당의 핵심정책 영역으로 부각시킨 결과 이 정책분야에서 가장 높은 22퍼센트를 획득하고 있지만, 시민당이 획득한 27퍼센트보다 5퍼센

트 포인트가 낮아 간관정책이라고 하기엔 역부족이라 하겠다. 다른 정책분야에 있어서도 한 자리 수밖에 얻지 못하는 정책인지도로 인해 자유당의 더욱 선명한 정책색깔로 유권자에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민주당은 최근 8년 집권 기간 동안 가족이슈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보건의료에 대한 정책부처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어렵지 않게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라고 선 듯 선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보건의료 정책분야(10%)만 빼고 나머지 11개 정책분야에서 5퍼센트 내외의 매우 낮은 정책인지도를 기록하고 있어 앞으로 생존에 적신호가 켜져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스웨덴 민주당은 이민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당했다고 선언했고, 지속적으로 이슈선점도 스웨덴 민주당이 해 왔다는 점에서 이 분야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하지만 가장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당으로 유권자들이 사민당(20%)을 선택하고 있어 17퍼센트 밖에 얻지 못한 스웨덴 민주당의 이민자해결 능력에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하지만 사민당이 집권기간 동안 이 문제를 국민이 납득할 수준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 스웨덴 민주당은 반사이익으로 1위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이 세계적인 성평등국가 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성평등국가로 가는 길은 아직도 멀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여성당은 이 분야에서 이슈선점을 해 왔던 정당의 입장에서 볼 때 유권자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18%)를 받았다는 점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지만 성평등 이슈문제도 사민당과 공동1위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여성당이 확실한 이슈선점을 하지 못하고는 4년 후 의회에 진출하는데 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 하면 핵심정책분야에서 확실한 두각을 보이지 못하면 다수 유권자들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정당 지지도는 더욱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lt;표 10&gt; 정책선호와 정당투표

정책이슈	v	s	mp	c	fp	kd	m	sd	fi	모름	합
1. 세금	9	27	3	3	4	2	33	3	1	15	100
2. 환경	4	10	<b>42</b>	<b>20</b>	2	1	6	2	1	12	100
3. 고용	7	<b>31</b>	3	4	4	1	30	3	1	15	100
4. 국가경제	6	27	3	2	3	1	<b>39</b>	3	1	16	100
5. 가계경제	7	24	3	3	4	2	<b>34</b>	3	1	19	100
6. 정치난민/이민	9	<u>20</u>	6	4	8	4	12	<b>17</b>	4	16	100
7. 보건의료	12	<b>31</b>	3	4	7	<b>10</b>	12	4	2	16	100
8. 양성평등	9	<u>18</u>	5	6	9	5	10	3	<b>18</b>	18	100
9. 학교교육	10	<u>27</u>	7	3	<b>22</b>	3	11	3	2	13	100
10. 사회복지	12	<b>31</b>	3	4	7	6	15	4	2	16	100
11. 연금	9	<u>29</u>	2	3	5	5	14	5	1	26	100
12. 수익형 사회기 업활동 금지	21	<u>20</u>	3	4	6	3	17	3	1	21	100

출처: VALU 2014

[http://www.svt.se/svts/article2323667.svt/binary/SVT\\_ValuResultat\\_riksdagsval\\_2014\\_PK\\_0914.pdf](http://www.svt.se/svts/article2323667.svt/binary/SVT_ValuResultat_riksdagsval_2014_PK_0914.pdf), 11쪽.

설명: 위의 수치는 12개의 정책 영역별로 가장 잘 수행할 것으로 예측한 유권자들이 정당의 선호도를 보여준다. 당별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정책분야는 밑줄과 굵은 글씨로 표시해 놓았다.

이제 마지막으로 유권자 투표이동성을 분석해 보면서 2014년 선거의 승자와 패자, 그리고 승패의 원인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아래 표11은 2010년 정당 지지표가 2014년 선거에서 어떤 정당으로 분산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다. 두 선거 연속으로 동일한 정당에 투표한 비율이 높을수록 그 정당에 대한 만족도, 신뢰, 기대치가 높아 정당귀속도 (Party affiliation)가 높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두 선거에서 각각 다른 정당에 투표를 했다면 그 반대의 상황, 즉 해당 정당에 대한 불만족, 낮은 신뢰와 기대감으로 인해 정당귀속도는 낮다고 볼 수 있다.

표11은 스웨덴 민주당 지지자들이 가장 안정적인 정당귀속도를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79퍼센트의 유권자는 2010년 선거에 이어 2014년 선거에서도 그 충성도는 변하지 않고 지속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정당귀속도가 높은 사민당은 78퍼센트로 여타 정당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지만 신생정당인 스웨덴 민주당보다는 1퍼센트 포인트가 낮다. 2010년 여성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이 69퍼센트로 높은 충성도를 확인할 수 있지만 당시 워낙 낮은 0.1퍼센트의 득표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 의미는 미미하다고 하겠다. 보수당도 과반수보다 훨씬 높은 63퍼센트의 핵심지지층이 2010년과 2014년 선거 모두 확고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 가장 많은 유권자를 다른 정당으로 뺏긴 정당은 자유당으로 겨우 43퍼센트의 유권자만이 연속적으로 동일 정당을 지지해 매우 낮은 정당귀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거의 과반에 이르는 지지층을 잃고 있는 환경당(50%), 중앙당(55%), 좌익당(57%), 그리고 기독교민주당(58%)의 경우도 선거에서 약진하지 못하고 약화된 모습을 보인 주된 원인은 지지자들의 이탈이라 할 수 있다.

표11에서 발견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좌우블록간의 지지자 이탈의 불균형을 들 수 있다. 좌익계열 정당들은 좌익블록 내에서 지지자를 서로 교환하는 비율이 훨씬 높지만, 우익블록의 경우는 상당비율의 지지자들이 극우정당인 스웨덴 민주당이나 좌익계열 정당들에게로 지지를 선회한 점이 두드러진다. 좌익당의 경우 2010년 지지자 중 14퍼센트가 사민당으로 지지를 돌렸고, 환경당에게는 5퍼센트를 돌렸지만 전 좌익당 당수를 역임했던 쉬만이 이끄는 새로운 좌익정당인 여성당에게 20퍼센트의 지지표가 빠져나갔다. 환경당의 경우 2010년도 지지자 중 10퍼센트는 좌익당으로, 그리고 13퍼센트는 사민당으로 옮겨 갔지만, 가장 큰 비율인 19퍼센트가 2014년 선거에서 여성당으로 지지를 선회했다. 즉 좌익당, 환경당, 사민당 등은 같은 좌익계열 내에서 지지자들을 상호 교환하고 있는 양상이다.

하지만 우익계열 정당들은 이탈한 지지자들이 좌익계열 정당들로 옮겨 가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 중앙당(c)의 경우 가장 높은 12퍼센트가 같은 우익계열 보수당에게로 옮겨 갔지만 사민당 (7%), 환경당 (7%)로 비교적 높은 비율이 좌익계열 정당으로 빠져 나간 점이 두드러진다. 자유당(fp)의 경우 2010년 지지층 중 17퍼센트가 같은 우익계열 정당인 보수당으로, 15

퍼센트가 사민당으로 이탈해 좌우블록 간 불균형이 확연히 나타난다. 보수당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2010년 지지자 중 2014년 선거에서 8퍼센트가 사민당으로 이탈했고, 8퍼센트가 극우정당으로 이탈해 우익계열의 결정적 약화를 초래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결국 좌우블록 정당 간 이탈자 불균형이 곧 우익정권이 2014년 선거에서 패배한 원인인 셈이다.

우파정당들은 위기상황에 봉착해 있다. 보수당의 2010년도 지지자 중 8퍼센트의 유권자가 스웨덴 민주당으로 빠져 나갔다는 사실은 보수당의 난민정책과 사회통합 정책의 실패를 의미하기 때문에 앞으로 유권자의 비판적 시각을 염두에 둔 현실적 이민정책입안으로 실망한 유권자들을 되돌려 올 수 있느냐가 정당세력 확장의 중요한 관건이다. 중앙당, 자유당, 기독교민주당 등 여타 우익계열 정당들의 경우 지지표가 좌익계열 정당으로 이탈하는 것도 문제지만 극우정당인 스웨덴 민주당으로 이탈하는 표를 막지 못하면 우익계열 블록의 집권가능성은 이제 요원하게 된다. 스웨덴 민주당에게 빼앗긴 표를 찾아오는 것 뿐 아니라 복지정책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환경정책 등으로 사민당과 환경당으로 옮겨간 지지층의 발길을 돌리지 못한다면 2018년 집권가능성은 매우 절박한 상황이라 예견할 수 있다.

좌익계열 정당들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좌익당, 환경당 등 기존 좌익계열 지지자들이 여성당으로 지지를 선회함으로써 또 다른 좌익계열 정당의 등장으로 인해 기존 좌익계열 정당들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고 전체 좌파블록의 확장이 아닌 블록 내 분절화를 촉진한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더 큰 문제점은 여성당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최저선인 4퍼센트를 넘지 못할 경우 좌익당과 환경당, 그리고 사민당에서 여성당으로 옮겨간 표는 사표가 되어 좌익계열의 집권가능성을 더욱 어렵게 하는 개연성도 커지게 된다.

<표 11> 2010년과 2014년 투표와 유권자 지지정당의 선택결정

2010 투표정당	2014년 투표정당										
	v	s	mp	c	fp	kd	m	sd	fi	기타	합
v	57	14	5	1	0	0	0	2	20	1	100
s	6	<b>78</b>	4	1	1	0	2	5	3	0	100
mp	10	13	<b>50</b>	2	1	1	3	1	19	1	100
c	1	7	7	55	7	6	12	3	2	1	100
fp	1	11	4	11	43	5	17	5	3	1	100
kd	1	7	4	6	6	58	13	4	1	0	100
m	1	8	3	6	7	4	<b>63</b>	8	1	0	100
sd	1	13	0	0	1	1	3	<b>79</b>	1	1	100
fi	9	6	9	0	1	0	2	2	<b>69</b>	2	100
기타	9	12	7	6	3	1	2	9	9	42	100
투표하지 않음	7	37	6	3	4	4	15	14	4	5	100
투표권 없었음	9	20	15	7	7	4	18	8	10	2	100

출처: VALU 2014,

[http://www.svt.se/svts/article2323667.svt/binary/SVT\\_ValuResultat\\_riksdagsval\\_2014\\_PK\\_0914.pdf](http://www.svt.se/svts/article2323667.svt/binary/SVT_ValuResultat_riksdagsval_2014_PK_0914.pdf), 14쪽.

설명: 표11의 수치는 정당별로 2010년 정당지지도를 100분위로 환산해 2014년 선거에서 어떻게 분산되었는지를 보여준다. 두 번 연속 같은 정당을 지지한 경우 (v2010/v2014, s2010/s2014, mp2010/mp2014) 정당충성도 혹은 귀속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굵은 글씨로 표시한 것은 귀속도가 가장 높은 정당부터 4위까지의 순위를 보여주고 있다. 정당결속도가 가장 높은 정당은 79퍼센트로 스웨덴 민주당이, 2위는 78퍼센트로 사민당이, 3위에는 여성당이 69퍼센트를 그리고 4위인 보수당은 63퍼센트를 기록하고 있다.

## 5. 총선 이후의 정치상황 분석

2014년 9월 총선은 한 정당만 제외하고 모두가 패배한 선거로 막을 내렸

다. 좌파진영은 과반수를 얻는데 실패했고, 우파진영은 좌파진영의 지지도를 넘지 못하고 8년 만에 야당으로 돌아 왔다. 라인펠트 수상은 개표일 밤 선거 패배를 시인하는 연설에서 정치를 떠나 평범한 개인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다. 헌법에 따르면 차기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행정부 수반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geringsformen 6장 11항). 라인펠트와 8년간 호흡을 함께 해 왔던 보리(Anders Borg) 재무부 장관까지 정계를 떠나겠다고 선언을 하고 홀연히 정치무대를 떠났다. 보수당의 당수 대행은 바로 신베리 바르타(Anna Kinberg Barta) 원내총무가 수행하면서 패배한 정당을 이끌어 나가는 비상경영체제로 들어갔다.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최대블록을 이루기는 했어도 과반을 넘지 못한 좌익블록은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정부구성절차에 들어갔다. 최대정당인 사민당에게 조각권이 주어졌다. 뢰벤(Stefan Löfven) 사민당 당수는 모든 정당과의 협의 끝에 환경당과 함께 순수좌파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요청한 후 의장의 제청을 받아 의회의결에 부쳐졌다. 사민당과 환경당의 총선득표율은 고작 38퍼센트에 그쳐 통상적으로는 의회를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스웨덴의 헌법은 소극적 의회주의(negative parliamentarism)에 기초한 규정, 즉 ‘다수가 반대하지 않으면 추천후보를 수상으로 선출할 수 있다’는 규정(Regeringsformen, 6장 3-4절)에 따라 좌익당 찬성, 극우정당 반대, 그리고 나머지 4개 우익정당들은 기권의사를 밝혀 결국 사민당이 주도하는 소수연립 정부가 구성되었다. 스웨덴의 헌법은 기권표까지 암묵적 찬성으로 간주하여 소수정부가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이는 1974년 신헌법 개정 당시 다당제 하에서 정권 구성이 불가능해져 정국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안해 낸 제도였다(Bergman 1993). 하지만 정부예산안을 포함한 법안통과, 의회 상임위의 투표 등은 모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하는 의회의결 절차에 대한 국회법 예산안 처리규정(국회법 11장 18절)에 따라 과반수의 적극적 찬성요건을 충족해야 통과될 수 있다.

사민당과 환경당은 야당의 도움 없이는 정부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밑 협상을 여러 번 시도했으나, 결국 좌익당만의 합의만 이끌어낸 채 우익정당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의원내각제에서

야당도 예산안을 제출하는 전통에 따라 4개 정당은 공동으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정부와 야당이 제출한 예산안은 의회재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다. 의회투표 결과 여당이 제출한 정부예산안 중 전체예산 규모만 원안대로 통과되었을 뿐 27개 항목별 심사에서는 야당이 제출한 대안 예산안(alternative budget 혹은 shadow budget)이 대신 통과되었다. 야당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배경은 우익계열 4개 정당을 합한 39퍼센트에 스웨덴 민주당의 13퍼센트가 가세한 안정적인 52퍼센트를 획득한 결과다. 정부예산안은 부결되고 야당안이 통과됨으로써 정부가 불신임을 받은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뢰벤(Stefan Löfven) 수상은 집권여당을 무시하고 야당이 제출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의원 내각제에서 정부불신임에 해당하는 사안이며, 앞으로 집권4년 동안 정국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없다고 보고 헌법이 정하는 시일 안에 조기총선을 치르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보수당의 경우 라인펠트 수상의 사임과 새 지도부가 전당대회에서 추인 받지 못한 임시 당수체제로 가동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다른 우익 정당들도 선거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민당과 물밑 협상을 진행한 결과 의회해산을 하루 남겨둔 12월 27일 일명 ‘12월 대타협’이라는 빅딜이 체결되었다. 빅딜은 4개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1. 한 정치블록의 정당득표율이 다른 블록의 총합보다 높을 때 비록 다수 정치블록이 과반수를 넘지 못하더라도 정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소수 정치블록은 정부인준안 투표에서 기권표를 던진다.
2. 소수블록 정당들은 정부예산안과 관계없이 예산안을 제출하되 정부예산안이 의회투표에서 패배할 것으로 예상되면 소수블록은 예산안 투표에 참가하지 않는다 (기권표를 던진다).
3. 예산안을 항목별로 다루지 않고 전체를 하나로 묶어 통과시킨다.
4. 예외 규정으로 안보국방, 연금, 에너지 정책은 좌우블록의 정책협의 사항으로 남겨놓는다.

이 합의는 2024년까지의 모든 정치상황에도 적용한다(DN 2014).”

이 같은 내용의 대타협안이 발표되자마자, 타협에 참여한 보수당 및 좌파 계열 정당에서 조차 비난이 일기 시작했다. 보수당의 반대세력들은 정부를 견제하는 야당의 역할을 포기한 직무유기라는 표현까지 쓰며 임시지도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타협에서 배제되었던 극우정당은 대타협을 밀실정치에 의해 태어난 다수의 독재라고 비난하고 나섰다(Svt 2014b). ‘12월 대타협’은 좌익연합에게는 안정적 정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었으나 동시에 좌익당과 합의를 전제로 해야만 우익정당들의 수적으로 능가하기 때문에 민영화된 사회기업의 수익금지과 같은 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현 정부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 선언한 좌익당을 설득하면서 정국을 주도할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 된다고 하겠다.

2015년 4월 17일 발표된 국방비딜은 12월 27일 정치빅딜 이후 최초의 좌우 정책공조에 속한다. 정부여당 2개당과 우파 정당 중 자유당만 빠진 보수당, 중앙당, 기독교민주당이 함께 발표한 국방개혁에 따라 2020년까지 매년 2억 크로네씩 총 10억 크로네를 국방비에 투입에 국방력을 강화하겠다고 합의했다. 러시아의 크림반도의 점령, 우크라이나 동부국경지역의 러시아 소수 민족 보호를 위한 파병 등으로 인한 지역안보의 불안과 발틱해를 통한 러시아 잠수함의 출몰이 의심되는 등 지속적으로 침략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좌우 정당들의 빅딜은 소수정권 하에서 정치안정의 좋은 본보기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우파정당들내에서 12월 정치대타협에 부정적인 목소리와 함께 파기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약화된 사민당과 환경당의 정치력으로 과연 안정적 정국을 이끌어 갈 수 있을지는 의문으로 남는다(DN 2014b; SvD 2014).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익4개당이 이제 스웨덴 민주당과 정책공조나 혹은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유권자 다수의 변화는 앞으로 스웨덴 정국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SvD 2015).

## 6. 나오는 글

2014년 총선은 스웨덴 정치사에 큰 의미를 남긴 채 막을 내렸다. 우선 2014년 총선결과 사민당이 이제 더 이상 단독정부를 구성할 수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사민당이 마지막으로 단독정부를 수립했던 2002년까지만 해도 소수정권이기는 했어도 35퍼센트 내외의 지지를 바탕으로 좌익계열 정당들의 정책공조를 통해 안정적 과반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사민당의 당세력이 30퍼센트 내외로 한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집권하는 것 자체가 벽찰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2014년 총선 이후 사민당과 환경당 만의 39퍼센트 소수정권이 출범되었으나, 과반이 반대하지 않으면 정권을 구성할 수 있는 소극적 의회주의 (negative parliamentarism)의 덕이지 과반수의 찬성을 요구하는 제도였다면 정권구성자체도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것은 극우정당의 13퍼센트 약진이라는 결과에 따라 많은 표를 스웨덴 민주당으로 잃은 우익4개 정당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스웨덴의 현재 정국은 극우정당의 협조 없이는 좌우블록 단독으로 과반을 넘지 못하는 정치적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스웨덴 정당체도는 이제 사민당 중심의 좌익블록, 보수당 중심의 우익블록, 그리고 극우정당으로 구성되는 3당중심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안정적 과반의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좌우의 벽을 허무는 좌우공동내각으로 가든지, 아니면 우익계열정당들이 스웨덴 민주당을 내각에 참여시켜 정부를 구성하던지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가능하겠으나, 인종차별주의를 가장 터부시하고 있는 스웨덴 정치엘리트들의 정서상 과연 가능할 것인가는 현재로서는 의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후자의 시나리오대로 우익정당들이 마음먹게 되면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우파진영의 권력독점현상이 예견될 수 있다.

스웨덴 다당제의 출현은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정치사회구조의 변화, 정치사회적 가치의 변화, 그리고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인한 인종차별주의 확산의 결과 새로운 정당이 의회에 진출하는 경로를 밟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세 가지 이론 - 사회균열이론, 탈물질주의이론, 인종차별주의이론으로 정치체제와 법제도적 틀의 변화, 시장체제의 변화, 사회변

화 그리고 가치변화 간의 상호연관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신생정당의 출현원인과 정당체제의 변화를 설명하고자 했다. 일부 학자들은 사회균열이론에서 사용하는 사회적 정렬구조(alignment)가 정치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탈정렬구조(dealignment), 혹은 재정렬구조(realignment)로 유권자 선거행태의 변화를 설명하기도 하지만 이 접근방식은 유권자들의 정당지지 유형의 변화를 설명할 때 주로 사용된다. 일부는 다른 접근방식, 예를 들어 로버트 알포드(Robert Alford)의 계급투표모델(class voting model), 사회경제적 지위, 즉 직업, 소득, 종교적 소속감, 그리고 도시농촌소속감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개념을 도입한 콜럼비아학교모델(Columbia school model), 정당일체감(party identification) 등의 개념을 도입한 미시간모델(Michigan model), 다운스(Anthony Downs)의 경제모델로부터 출발한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 등을 사용해 유권자들의 선거양태 변화양상과 원인을 추적해 규명하고자 한다.<sup>7)</sup> 하지만 이 논문은 스웨덴 유권자 선거행태의 변화요인을 규명하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라기보다는 사회균열구조에 따라 형성된 초기 정당제도가 어떠한 원인으로 변화되며, 새로운 정당들의 출현하는 원인과 과정, 그리고 그 결과 초래되는 정당체제의 변화를 설명하고자 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연구를 위해 선택된 3개의 이론적 조합의 적절성은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보통선거와 의회주의가 도입된 1920년대 이후 1988년까지 고착화된 전통적 5개 정당체제의 형성과정은 개인의 사회인구적 소속감과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균열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었고, 1988년 이후 등장한 환경당의 의회진출은 중심부(center)와 주변부(periphery)라는 핵심요소를 구성하는 언어, 인종, 종교, 사회계급 등의 사회균열이론으로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고 새로운 탈물질주의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었다. 개인의 이익과 자신이 속한 사회단체의 이익만이 아닌 인간가치와 문화에 민감한 신세대 특히 여성환경주의자들의 환경, 기후, 자연, 소비문화에 대한 책임성과 변화된 가치기준은 새로운 정당의 출현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설명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1991년의 신민주당의 진출이후 새롭게 등장한 극우정당인 스

7) 다양한 선거행태 모델에 대해서는 Choe (2003), 157-166쪽을 참조할 것.

웨덴 민주당의 2010년 의회진출과 함께 시작된 8개 정당체제는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2분법적 사고, 즉 ‘우리’와 ‘그들’이라는 인종우월적 시각에서 기존정당들에서 해답을 구하지 못할 때 새로운 정당의 태동을 강하게 요구한다는 점에서 오스트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고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로 계속 부상하던 인종차별주의와 신나치주의는 스웨덴의 정치지형까지도 바꾸고 있는 상황을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하게 해 주는 이론적 틀을 제공해 주었다.

비록 의회진출에 실패는 했지만 큰 가능성을 남겨 놓은 여성당의 약진은 또 다른 이론적 시각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당의 시각은 사민당, 좌익당, 환경당이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결과의 평등성을 지향하지만, 남성 위주의 제도 하에서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여성의 권익증진을 보장할 수 있는 획기적인 법제도 개혁, 예를 들어 정당공천과정에서 여성의 비율을 일정 쿼터제로 의무화하거나, 노동시장에서 최대 남녀임금격차를 일정비율로 정하거나, 또는 일정비율 여성고용 의무화 등의 새로운 법제정과 관계법 개정, 제도개혁을 통해 성취할 수 있다는 시각에 기초한 페미니즘 이론이 적합하다. 이 이론에 입각한 여성해방운동, 노동시장 내 차별금지운동, 가정 내 양성평등운동 등은 기존정당들의 적실성 있는 대응여부에 따라 새로운 핵심유권자그룹의 형성은 물론 양성평등이라는 사회적 담론을 이끌어내는 촉매제가 되어 정당체제 변화에도 작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2014년 총선결과는 사민당의 주도 하에 구축된 스웨덴 모델의 변화에 박차를 가하는 신호탄일지 모른다. 2018년 선거는 스웨덴 민주당의 지속적인 세력팽창, 여성당의 등장, 혹은 기존 우익 정당들 중 일부가 탈락해 새로운 정치지형을 형성할 수 있는 중대한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정치난민의 대량유입, 유럽 국경개방 이후 루마니아에서 몰밀 듯 유입되고 있는 걸인문제는 신나치즘과 인종우월주의라는 불덩이에 기름을 붙는 상황이 되어 극우정당의 권력 장악이 더욱 현실화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렇듯 좌와 우 양쪽에서 기존정당체제를 옥죄고 있는 형국에서 앞으로 4년 동안 사민당과 환경당으로 구성된 좌파정권이 어떻게 좌

의당과 정책보조를 함께 하면서 우파정당들과 원만한 협상을 통해 정치안정을 이루며 경제성장과 복지, 그리고 이민자 문제, 양극화문제 등을 접근할지, 그리고 우익정당들은 어떻게 극우정당의 팽창을 억제시키며 좌파의 대안으로 다시 결집할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2월의 대타협’에 합의한 4개 우익정당 내에서 지속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는 반대의 목소리에 끌려 타협폐기에 이르게 되는 순간부터 조기 총선이나 정권 교체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어 스웨덴의 정치는 이제 예측 불가능한 정치로 빠르게 변화될지도 모르는 기로에 있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Aftonbladet 2015. “Vi kan förlora valet på Monas miss” (사민당 당수 모나 살린의 실수, 좌파의 패인). 2008-10-14.  
<http://www.aftonbladet.se/debatt/article11536557.ab>. 2015-05-19 자료열람.
- Bennulf, Martin. 1994. *Miljöopinionen i Sverige* (스웨덴에서의 환경여론). Lund: Dialogos.
- Bergman, Torbjörn. 1993. “Constitutional Design and Government Formation: The Expected Consequences of Negative Parliamentarism.”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16(4). pp. 285-302.
- Bjereld, Ulf. 2013. “Så blir kvällens partiledardebatt i SVT Agenda” (정당당수 토론).  
<http://ulfbjereld.blogspot.se/2013/05/sa-blir-kvallens-partiledardebatt-i-svt.html>. 2015-05-20 열람.
- Choe, Yonhyok. 2002. *Social Cleavage and Party Support: A comparison of Japan, South Korea and the United Kingdom*. Stockholm. Södertörn Univeristy Research Report 5.
- Choe, Yonhyok. 2003. *Valsystem och den representativa demokratin*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 Lund: Liber. 2003. Textbook.
- Christopoulos, D. ed. 2012. *Mapping Ultra-Right Extremism, Xenophobia and Racism within the Greek State Apparatus*. Brussels, Rosa Luxemburg Stiftung.
- DN 2004. “Vi ska befria kvinnorna från kollektivismen” (우리가 집단주의로부터 여성을 해방시킨다). 2004-08-30.  
<http://www.dn.se/arkiv/debatt/vi-ska-befria-kvinnorna-fran-kollektivismen-forsa-fyrpartiutspelet-i-kampen>. 2015-05-18 자료열람.
- DN 2014a. “Så var valdagen 2014 - från början till slut” (2014년 선거일 보도: 처음부터 끝까지). 2014-09-15.  
<http://www.dn.se/valet-2014/sa-var-valdagen-2014-fran-borjan-till-slut/>.

2015-05-15 자료열람.

DN 2014b. “Så fungerar decemberöverenskommelsen” (12월 타협, 이렇게 작동한다). 2014-12-27.

<http://www.dn.se/nyheter/politik/sa-fungerar-decemberoverenskommelsen/>.  
2015-05-19 자료열람.

DN 2015. “En halv miljon arbetslösa 2010” (50만 명의 실업자 시대).  
<http://www.dn.se/ekonomi/en-halv-miljon-arbetslosa-2010/>. 2015-05-19 자료열람.

Downs, Anthony.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Esaiasson, Peter. 1990. *Svenska Valkampanjer 1866-1988* (스웨덴 선거운동). Stockholm, Allmänna Förlaget.

Esping-Andersen, Gösta. 1999.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Expressen 2014. “Mona Sahlin tvingades avgå efter skandal” (모나살린, 스캔달로 강퇴당했다). 2014-11-22.

<http://www.expressen.se/om-expressen/mona-sahlin-tvingades-avgang-efter-skandal/>. 2015-05-19 자료열람.

Expressen 2014. “Opinionsmätning: Fi kommer in i riksdagen” (여론조사: 여당 의회 진출가능). 2014-09-11.

<http://www.expressen.se/nyheter/val2014/opinionsmatning-fi-kommer-in-i-riksdagen/>. 2015-05-20 자료열람.

Finanspolitiska rådet 2015. “Finanspolitiska rådets rapport 2015”.

Hagevi, Magnus. 2005. *Religion och politik* (종교와 정치). Lund: Liber.

Hanspeter, Kriesi. 2012.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the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in Europe: Electoral Punishment and Popular Protest”. *Swiss Political Science Review*. Volume 18, Issue 4. pp. 518-522, December 2012.

Hernández, Enrique and Kriesi. 2015. “The electoral consequences of the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in Europe”.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 Florence. Unpublished article.
- Gilljam, Mikael and Holmberg, Sören. 1990. *Rött Blått Grönt: en bok om 1988 års riksdagsval* (Red Blue Green, 1988년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연구서). Stockholm, Bonnier.
- Inglehart, Roland. 1977.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Inglehart, Ronald, Basáñez, Miguel, Díez-Medrano, Jaime, Halmann, Loek and Luijkx, Ruud. (eds.) 2004. *Human Beliefs and Values. A cross-cultural sourcebook based on the 1999-2002 values surveys*. Coyoacan: siglo veintiuno editores.
- Langenbacher, Nora and Schellenberg, Britta. 2011. *Is Europe on the "Right" Path? Right-wing extremism and right-wing populism in Europe*. Berlin, Forum Berlin.
- Lewin, Lief. 1972. *The Swedish Electorate 1887-1968*. Uppsala: Almqvist and Wiksell.
- Lewin, Lief. 1984. *Ideologi och strategi. Svensk politik under 100 år* (사상과 전략). Stockholm: Norstedt.
- Lijphart, Arend. 2012. *Patterns of Democracy: Government forms and performance in thirty-six countries*. 2nd ed.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Lindberg, Helen. 2009. *Only Women Bleed - A Critical Reassessment of Comprehensive Feminist Social Theory*. Örebro: Örebro Studies in Political Science.
- Lindberg, Helen. 2010. "Nytan av feministisk samhällsteori och ideologi för statsvetenskapen" (페미니스트 사회이론과 사상의 정치학적 유의성). Jernek, Magnus & Badersten, Björn, *Kontraster och nyanser - Svensk statsvetenskap i brytningstid* : Statsvetenskapliga förbundets Jubileumbok, Lund.
- Lipset, Seymour M. and Rokkan, Stein. 1967. *Party systems and voter*

- alignments: Cross-national perspectives.* Toronto: The Free Press.
- Möller, Tommy. 2011. *Svensk politisk historia - Strid och samverkan under tvåhundra år* (스웨덴 정치사. 투쟁과 공존의 200년). Lund: Studentlitteratur.
- Rhodes, Martin, Heywood, Paul and Wright, Vincent. eds. 1997. *Development in West European Politics.* London, Macmillan.
- Rokkan, Stein. 1970. *Citizens, Elections, Parties: Approaches to the Comparative Study of the Processes of Development.* Oslo, Universitetsforlaget.
- Sartori, Giovanni. 1994. *Comparative Constitutional Engineering: An Inquiry into Structures, Incentives and Outcomes.* London, Macmillan.
- Socialdemokraterna 2010. “Valanalys 2010: Rapport från den socialdemokratiska Kriskommissionen” (선거결과분석 2010: 사민당 위기수습위원회 보고서).  
<http://www.socialdemokraterna.se/upload/Kriskommissionen/Valanalys2010.pdf>. 2015-05-19 자료열람.
- SvD 2014. “Demokratiskt problematisk överenskommelse” (대타협, 민주적 결합 있다.). 2014-12-27.  
[http://www.svd.se/opinion/ledarsidan/decemberoverenskommelsen-ar-demokratiskt-problematisk\\_4216251.svd](http://www.svd.se/opinion/ledarsidan/decemberoverenskommelsen-ar-demokratiskt-problematisk_4216251.svd). 2015-05-18 자료열람.
- SvD 2015. “Bör Allianspartier samarbeta med SD?” (이제 우익정당들은 스웨덴 민주당과 공조를 해야 하지 않을까?). 2015-05-02.  
[http://www.svd.se/opinion/brannpunkt/brp-direkt-samarbete-med-sd\\_4538480.svd](http://www.svd.se/opinion/brannpunkt/brp-direkt-samarbete-med-sd_4538480.svd). 2015-05-19 자료열람.
- Svt 2014a. “Uppåt för S och Fi” (사민당과 여성당의 약진). 2014-5-12.  
<http://www.svt.se/nyheter/val2014/kraftig-okning-for-m-och-s>. 2015-05-19 자료열람.
- Svt 2014b. “Hård kritik mot uppgörelsen” (대타협의 정치에 대한 신랄한 비판). 2014-12-18.  
<http://www.svt.se/nyheter/inrikes/hard-kritik-mot-uppgorelsen>. 2015-05-19 자료열람.

람.

Svt 2015. “Dyster prognos för den svenska ekonomin” (스웨덴 경제의 어두운 전망). 2015-01-20.

<http://www.svt.se/nyheter/ekonomi/finansministern-lagegr-fram-prognos>.  
2015-05-19 자료열람.

Wallin, Gunnar. 1961. *Valrörelser och valresultat. Andrakammarvalen i Sverige 1866-1884* (선거운동과 결과. 스웨덴 하원선거). Stockholm: Ronz boktryckeri.

## 인터넷 자료

- Aliansen 2014. “Vi bygger Sverige” (스웨덴을 건설합니다).  
<http://www.alliansen.se/wp-content/uploads/2014/09/Vi-bygger-Sverige-Alliansens-valmanifest-2014-2018.pdf>
- Feminiskt initiativ 2014. “Feminism för alla”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http://feministisktinitiativ.se/wp-content/uploads/2014/06/Fi-valplattform-riksdag-2014.pdf>
- Miljöpartiet 2014. “Dags för en varmare politik” (더욱 따뜻한 정치가 필요할 때입니다). [http://www.mp.se/sites/default/files/valmanifest\\_oppdaterad.pdf](http://www.mp.se/sites/default/files/valmanifest_oppdaterad.pdf)
- Socialdemokraterna 2014 “Socialdemokraternas valmanifest” (사민당의 선거공약).  
[http://www.socialdemokraterna.se/upload/val/Val2014/valloften/Socialdemokraternas\\_Valmanifest.pdf](http://www.socialdemokraterna.se/upload/val/Val2014/valloften/Socialdemokraternas_Valmanifest.pdf)
- Sverigedemokraterna 2014. “Vi väljer välfärd” (우리는 복지를 선택합니다).  
<http://sverigedemokraterna.se/wp-content/uploads/2014/08/Valmanifest.pdf>
- Vänsterpartiet 2014. “Valplattform för riksdagsvalet 2014” (2014년 총선 공약).  
<http://www.vansterpartiet.se/assets/V%C3%A4nsterpartietValplattform2014.pdf>
- Valmyndighet, <http://www.val.se/val/val2014/slutresultat/R/rike/>

<Abstract>

**The Swedish Party Politics after the 2014  
Parliamentary Election:  
Party System Change from Two-Block to  
Three-Party System**

Choe, Yonhyok\*

The Swedish party system has undergone a drastic change during the recent two decades. The traditional five-party system was challenged by the Christian Democratic Party which succeeded in winning a parliamentary seat in the 1985 election. Since then on, the Swedish party system has been changing to a multi-party system consisting of current 8 political parties. Although the electoral system based on Proportional Representation (PR) system is believed to be a crucial factor to formation of multi-party system, it does not make a broader account for why new parties can make a successful debut and why old parties fade away in parliamentary elections. The article treats three theories - social cleavages, post-materialism and, finally, racism as analyzing tools for grasping the changing patterns of the Swedish party system. Psephological analysis of the 2014 parliamentary election by manifesto, voting behavior and post-election process witnesses hardship of the new minority red-green government in handling approval of budget process with four right-wing opposition parties. The traditional two-block party system will be endangered by the increased leverage of the right extremist Swedish Democrats in the Parliament *Riksdag*. It is a

---

\*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Gothenburg

looming trend that the Swedish party system is swiftly moving from two-block to three-party system.

**Key Words:** party system in Sweden,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social cleavage, racism, red-green coalition, left-right block, social democratic party, right extremist party

---

성명: 최연혁

소속: 스웨덴 예테보리대학교 정치학과

E-mail: yonhyok.choe@scips.se

논문접수일: 2015.5.23.

수정원고접수일: 2015.8.10.

논문심사완료일: 2015.7.7.

게재확정일: 2015.8.10.

